



2023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기초연구



대전광역시 40~50대 남성 1인 가구 현황 및 지원방안 기초조사

류유선 · 김성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연구책임

• 류유선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공동연구

• 김성곤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2023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기초연구

대전광역시 40~50대 남성 1인 가구 현황 및 지원방안 기초조사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50 팩스: 042-530-3559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지그래픽

전화 042-256-5055 이메일 : gg5055@daum.net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서론	3
1. 조사배경	3
2. 조사내용과 추진과정	5
1) 조사내용 및 방법	5
2) 추진과정	6
2장 설문조사 결과	9
1. 설문조사 개요	9
1) 설문조사 목적 및 개요	9
2. 설문조사 결과	13
1) 사회적 관계망	13
2) 경제적 환경	34
3) 마음건강	42
4) 1인 가구의 삶	57
3. 분석 요약	76
1) 사회적 관계망	76
2) 경제적 환경	77
3) 마음건강	79
4) 1인 가구의 삶	81
3장 제언	87
1. 중장년 남성 1인가구 관심 제고	87
2. 경제적 자립 여건 마련	88
3. 더 집중적이고 강화된 안내와 홍보	88
4. 1인가구 삶의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89
5. 기초조사의 한계	90

부록. 설문지 91

참고문헌 95

표 차례

[표 2-1] 조사 내용 10

[표 2-2] 응답자 특성 12

[표 2-3] 고민 상담 대상 유무 : 응답자 특성별 13

[표 2-4] 주요 고민 상담 대상 : 응답자 특성별 15

[표 2-5] 직접 만나는 빈도가 높은 대상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16

[표 2-6] 직접 만나는 빈도가 높은 대상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18

[표 2-7]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대상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19

[표 2-8]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대상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21

[표 2-9] 가족관계 만족도 22

[표 2-10] 가족관계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23

[표 2-1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24

[표 2-12]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25

[표 2-13]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26

[표 2-14]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27

[표 2-15]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3순위) : 응답자 특성별 28

[표 2-16]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 순위별 요약 29

[표 2-17] 여가나 취미 활동 여부 및 종류 (복수응답) - 요약 30

[표 2-18] 여가나 취미 활동 여부 및 종류 (복수응답) : 응답자 특성별 31

[표 2-19]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응답자 특성별 33

[표 2-20] 주요 소득 마련 방법 : 응답자 특성별 35

[표 2-21] 현재 소득 수준의 만족도 36

[표 2-22] 현재 소득 수준의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37
[표 2-23] 가장 부담이 되는 고정지출항목 : 응답자 특성별	39
[표 2-24] 앞으로의 소득 수준 예상	40
[표 2-25] 앞으로의 소득 수준 예상 : 응답자 특성별	41
[표 2-26]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	42
[표 2-27]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 : 응답자 특성별	43
[표 2-28]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44
[표 2-29]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 응답자 특성별	45
[표 2-30]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 : 응답자 특성별	47
[표 2-31]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법 : 응답자 특성별	49
[표 2-32]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	51
[표 2-33]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	53
[표 2-34]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3순위) : 응답자 특성별 ..	55
[표 2-35]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 순위별 요약	56
[표 2-36]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유무 : 응답자 특성별	57
[표 2-37] 혼자 산 기간 (1년~11년) : 응답자 특성별	58
[표 2-38] 혼자 산 기간 (12년~30년) : 응답자 특성별	59
[표 2-39]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 응답자 특성별	60
[표 2-40] 혼자 사는 현재의 만족도	62
[표 2-41] 혼자 사는 현재의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63
[표 2-42]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64
[표 2-43]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66
[표 2-44]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 순위별 요약	67
[표 2-45] 향후 전반적인 생활 수준 예상	68
[표 2-46] 향후 전반적인 생활 수준 예상 : 응답자 특성별	69
[표 2-47]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	71
[표 2-48]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	73
[표 2-49]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 순위별 요약	74

[표 2-50]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3순위) : 응답자 특성별 .. 75

그림 차례

[그림 1-1] 40~50대 남성 1인 가구 수 변화	4
[그림 1-2] 추진과정	6



1장

서론

1. 조사배경
2. 조사내용과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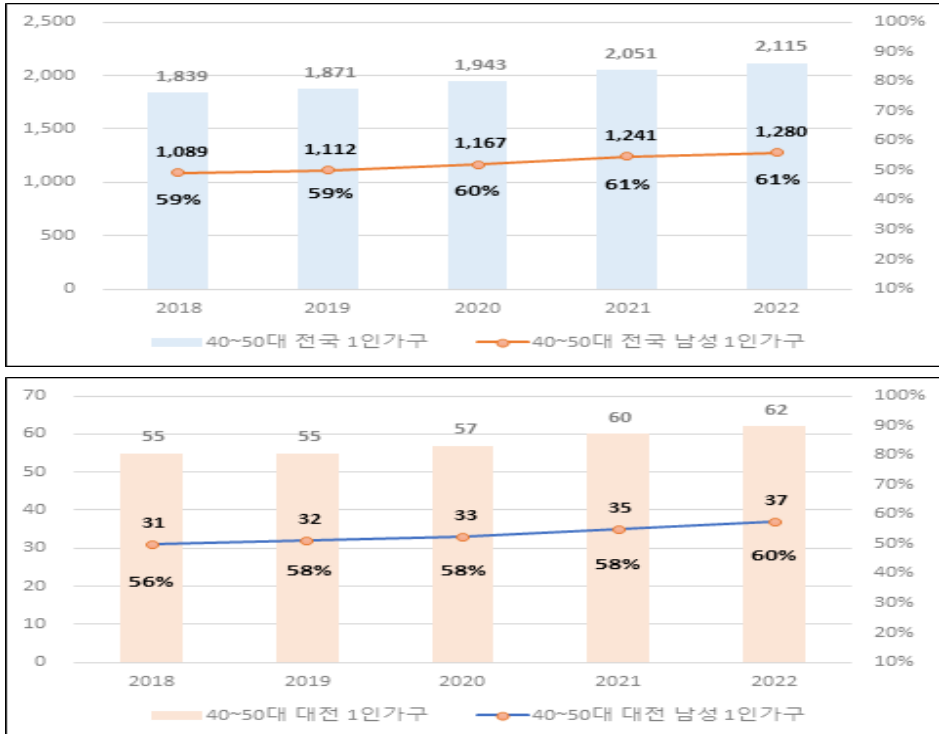


1장 서론

1. 조사배경

- 통계청의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1년 기준 1인 가구는 33.4%이고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대전의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37.6%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며, 1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이 48.1%로 가장 높았고, 60대이상 26.9%, 40~50대 25.1% 순서로 나타남
- 또한 앞으로는 젊은 1인 가구보다 노령 1인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측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청년과 노인 1인 가구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함
- 더욱이 1인 가구의 성별 증가 분포를 보면 여성 위주에서 남성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며 양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남(박미선·조윤지, 2020)

단위: 천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와 각년도 원자료를 재구성

주: 40~50대 연령의 1인 가구 수를 기준으로 남성 1인 가구의 수와 비율만 표시함

[그림 1-1] 40~50대 남성 1인 가구 수 변화

- 실제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50대 남성 1인 가구는 전국 통계나 대전 통계 모두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중장년 1인 가구는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질 위험성이 높지만 청년과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원정책체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각 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송인주, 2016)
- 이에 따라 대전지역의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2. 조사내용과 추진과정

1) 조사내용 및 방법

- 대전지역 만 40세부터 59세까지의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제시함
- 이를 기초하여 대전광역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경제적·마음건강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돌봄 및 가사노동의 미숙에서 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일부 취약계층 남성들은 불안정한 직업 지위와 낮은 소득원으로 인해 빈곤의 위협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왜곡된 남성다움을 강요받아온 세대라는 점에서 사회적 생활을 터놓을 만한 정서적 지지망이 취약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이진숙·이윤석, 2014), 현재 사회정책의 기초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장진희 외 4인, 2017)
- 설문조사의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40~50대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환경, 마음건강, 1인 가구 삶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함
- 조사 결과는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결과표를 통해 집단간 실태 현황 및 인식 차이를 분석함

2) 추진과정

○ 본 조사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추진 단계	항목	내용
자료 수집 (4~5월)	선행연구 분석 통계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관련 연구자료 분석 1인 가구 관련 통계자료 분석
설문 조사 및 분석	연구 방법 및 설문 문항 설계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내부 연구자 자문회의(3회) 다양한 선행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방법 및 설문 문항 설계
	설문조사 실시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설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40~50대 남성 1인 가구 - 구조화된 설문지로 오프라인 조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황 분석 2)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도출 (12월)	조사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공유

[그림 1-2] 추진과정



2 장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분석 요약



2장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및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40~50대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 생활 실태 및 마음건강 수준을 파악하여 중년 남성들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조사는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하고, 영역별 정책 수요를 우선순위별로 구성함
- 이 결과는 대전시 중장년 남성들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설문조사 개요

① 조사 내용

- 대전지역 40~50대 남성의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환경, 마음건강,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환경 및 만족도,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함
- 응답자 내부의 다층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추가하였고, [표 2-1]과 같이 요약됨

[표 2-1] 조사 내용

분야	조사 항목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대상 ▪ 가족 및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주된 생활공간 및 여가활동 여부
경제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마련 방법 ▪ 소득수준 만족도 ▪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수준
마음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 ▪ 우울감 경험과 원인 ▪ 우울감 해소 방법 ▪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1~3순위)
1인 가구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생활하는 이유 ▪ 만족도 ▪ 어려운 점 ▪ 앞으로 예상되는 생활 수준 ▪ 중장년 1인 가구 남성을 위한 지원 (1~3순위)
응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1964년 ~ 1983년 사이) ▪ 거주지역 ▪ 최종학력 ▪ 근로유형 ▪ 월 평균 소득

② 조사 대상

- 본 조사는 40~50대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임
- 본 조사의 목표 표본 수는 400명이며, 시민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401부를 대상으로 분석함
- 조사 시 각 구별, 연령대별(40대, 50대) 균등하게 응답자 비율을 맞춤

③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신뢰성 있는 외부 조사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함
- 본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문조사업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코딩화,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s 24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됨

④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40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2]과 같음
-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01명, 200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자치구는 '동구'만 81명이고 나머지 4개 구는 각 80명씩임
- 최종학력은 '고졸'이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졸'(45.4%)였으며 '대학원졸', '중졸 이하' 순서였음
- 근로유형은 '상용근로자(정규직)'이 5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용근로자(계약직)'이 17.2%였음
-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사이에 응답한 자가 56.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로 응답한 자는 2.2%로 가장 적었음

[표 2-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N)	퍼센트 (%)	구분		사례수 (N)	퍼센트 (%)
연령대	40~49세	201	50.1	근로 유형	자영업	55	13.7
	50~59세	200	49.9		프리랜서	27	6.7
차차구	동구	81	20.2		상용근로자(정규직)	209	52.1
	중구	80	20.0		상용근로자(계약직)	69	17.2
	서구	80	20.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35	8.7
	유성구	80	20.0		무직	6	1.5
	대덕구	80	2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9	2.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	1.5		100 - 200만원	20	5.0
	고졸	195	48.6		200 - 300만원	115	28.7
	대졸	182	45.4		300 - 400만원	228	56.9
	대학원졸	18	4.5		400만원 이상	29	7.2

2. 설문조사 결과

1) 사회적 관계망

(1) 고민 상담 대상 유무

[표 2-3] 고민 상담 대상 유무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예	아니오	계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169(84.1)	32(15.9)	201(100.0)	1.719 (.190)
	만 50~59세	158(79.0)	42(21.0)	200(100.0)	
자치구	동 구	53(65.4)	28(34.6)	81(100.0)	30.223 (.000)
	중 구	58(72.5)	22(27.5)	80(100.0)	
	서 구	71(88.8)	9(11.3)	80(100.0)	
	유성구	74(92.5)	6(7.5)	80(100.0)	
학력	대덕구	71(88.8)	9(11.3)	80(100.0)	4.820 (.185)
	중졸 이하	3(50.0)	3(50.0)	6(100.0)	
	고졸	161(82.6)	34(17.4)	195(100.0)	
	대졸	147(80.8)	35(19.2)	182(100.0)	
근로유형	대학원졸	16(88.9)	2(11.1)	18(100.0)	34.263 (.000)
	자영업	47(85.5)	8(14.5)	55(100.0)	
	프리랜서	25(92.6)	2(7.4)	27(100.0)	
	상용근로자(정규직)	184(88.0)	25(12.0)	209(100.0)	
	상용근로자(계약직)	47(68.1)	22(31.9)	69(100.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22(62.9)	13(37.1)	35(100.0)	
소득수준	무직	2(33.3)	4(66.7)	6(100.0)	33.482 (.000)
	100만원 이하	3(33.3)	6(66.7)	9(100.0)	
	100만원~200만원	11(55.0)	9(45.0)	20(100.0)	
	200만원~300만원	87(75.7)	28(24.3)	115(100.0)	
	300만원~400만원	202(88.6)	26(11.4)	228(100.0)	
400만원 이상	24(82.8)	5(17.2)	29(100.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자치구’,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연령대’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우세했고, 응답비율은 40대 84.1%, 50대 79.0%로 차이를 보임
- ‘자치구’는 ‘동구’와 ‘중구’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4%, 72.5%로 낮게 나타났음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 50%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 집단은 80%이상의 비율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 ‘근로유형’별로는 상용근로자(계약직)와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무직 집단이 각각 68.1%, 62.9%, 33.3%로 자영업(85.5%), 프리랜서(92.6%), 상용근로자(정규직)(88%)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소득수준’에서는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각각 33.3%, 55%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응답함

(2) 주요 고민 상담 대상

[표 2-4] 주요 고민 상담 대상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친구 / 이웃	직장 동료	선후배	전문상담가 / 사회복지사	계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14(8.3)	7(4.1)	40(23.7)	4(2.4)	72(42.6)	12(7.1)	18(10.7)	2(1.2)	169	5.868 (.555)
	만 50~59세	8(5.1)	5(3.2)	40(25.3)	6(3.8)	59(37.3)	16(10.1)	18(11.4)	6(3.8)	158	
자치구	동 구	7(13.2)	2(3.8)	8(15.1)	2(3.8)	24(45.3)	2(3.8)	7(13.2)	1(1.9)	53	35.876 (.146)
	중 구	4(6.9)	3(5.2)	14(24.1)	0	28(48.3)	2(3.4)	7(12.1)	0	58	
	서 구	2(2.8)	6(8.5)	17(23.9)	2(2.8)	26(36.6)	5(7.0)	10(14.1)	3(4.2)	71	
	유성구	6(8.1)	0	23(31.1)	4(5.4)	24(32.4)	10(13.5)	6(8.1)	1(1.4)	74	
	대덕구	3(4.2)	1(1.4)	18(25.4)	2(2.8)	29(40.8)	9(12.7)	6(8.5)	3(4.2)	71	
학력	중졸 이하	0	0	0	0	3(100.0)	0	0	0	3	21.380 (.436)
	고졸	16(9.9)	5(3.1)	34(21.1)	3(1.9)	66(41.0)	17(106)	15(9.3)	5(3.1)	161	
	대졸	5(3.4)	7(4.8)	40(27.2)	6(4.1)	58(39.5)	11(7.5)	18(12.2)	2(1.4)	147	
	대학원졸	1(6.3)	0	6(37.5)	1(6.3)	4(25.0)	0	3(18.8)	1(6.3)	16	
근로 유형	자영업	3(6.4)	1(2.1)	11(23.4)	3(6.4)	19(40.4)	3(6.4)	6(12.8)	1(2.1)	47	52.074 (.032)
	프리랜서	1(4.0)	3(12.0)	4(16.0)	1(4.0)	11(44.0)	2(8.0)	3(12.0)	0	25	
	상용근로자(정규직)	17(9.2)	8(4.3)	46(25.0)	4(2.2)	65(35.3)	19(10.3)	20(10.9)	5(2.7)	184	
	상용근로자(계약직)	1(2.1)	0	18(38.3)	1(2.1)	21(44.7)	1(2.1)	3(6.4)	2(4.3)	47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0	0	1(4.5)	1(4.5)	15(68.2)	3(13.6)	2(9.1)	0	22	
소득 수준	무직	0	0	0	0	0	0	2(100.0)	0	2	69.774 (.000)
	100만원 이하	0	0	0	0	0	0	3(100.0)	0	3	
	100만원~200만원	1(9.1)	0	1(9.1)	0	6(54.5)	1(9.1)	2(18.2)	0	11	
	200만원~300만원	4(4.6)	0	14(16.1)	2(2.3)	56(64.4)	5(5.7)	4(4.6)	2(2.3)	87	
	300만원~400만원	16(7.9)	5.9(3.7)	56(27.7)	6(3.0)	60(29.7)	20(9.9)	27(13.4)	5(2.5)	202	
400만원 이상	1(4.2)	0	9(37.5)	2(8.3)	9(37.5)	2(8.3)	0	1(4.2)	24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고민 상담 대상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친구 또는 이웃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배우자, 선후배 순서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연령대’는 친구/이웃이 가장 높았고 40대 42.6%, 50대 37.3%로 차이가 있었음. ‘자치구’ 역시 전 집단이 친구/이웃에 높게 응답한 가운데 유성구 집단은 배우자로 응답한 비율이 31.1%로 친구/이웃으로 응답한 비율 32.4%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음
- 이러한 경향은 ‘근로유형’ 특성의 상용근로자(정규직), 상용근로자(계약

직)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소득수준'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배우자와 상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3) '직접' 만나는 빈도 높은 대상 (1순위)

[표 2-5] 직접 만나는 빈도가 높은 대상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	없음	계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12(6.0)	27(13.4)	9(4.5)	2(1.0)	82(40.8)	65(32.3)	4(2.0)	201	10.080 (.121)
	만 50~59세	15(7.5)	33(16.5)	10(5.0)	10(5.0)	81(40.5)	50(25.0)	1(0.5)	200	
차차구	동 구	9(11.1)	14(17.3)	3(3.7)	1(1.2)	26(32.1)	27(33.3)	1(1.2)	81	33.168 (.101)
	중 구	3(3.8)	14(17.5)	4(5.0)	4(5.0)	29(36.3)	24(30.0)	2(2.5)	80	
	서 구	5(6.3)	7(8.8)	4(5.0)	4(5.0)	29(36.3)	29(36.3)	2(2.5)	80	
	유성구	4(5.0)	17(21.3)	5(6.3)	1(1.3)	32(40.0)	21(26.3)	0	80	
	대덕구	6(7.5)	8(10.0)	3(3.8)	2(2.5)	47(58.8)	14(17.5)	0	80	
학력	중졸 이하	0	0	0	0	2(33.3)	4(66.7)	0	6	34.383 (.011)
	고졸	22(11.3)	28(14.4)	10(5.1)	6(3.1)	61(31.3)	65(33.3)	3(1.5)	195	
	대졸	5(2.7)	26(14.3)	8(4.4)	6(3.3)	92(50.5)	43(23.6)	2(1.1)	182	
	대학원졸	0	6(33.3)	1(5.6)	0	8(44.4)	3(16.7)	0	18	
근로 유형	자영업	3(5.5)	5(9.1)	3(5.5)	1(1.8)	24(43.6)	19(34.5)	0	55	51.656 (.008)
	프리랜서	0	5(18.5)	0	2(7.4)	11(40.7)	8(29.6)	1(3.7)	27	
	상용근로자(정규직)	15(7.2)	39(18.7)	12(5.7)	5(2.4)	75(35.9)	61(29.2)	2(1.0)	209	
	상용근로자(계약직)	5(7.2)	11(15.9)	2(2.9)	3(4.3)	38(55.1)	10(14.5)	0	69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3(8.6)	0	2(5.7)	0	14(40.0)	15(42.9)	1(2.9)	35	
	무직	1(16.7)	0	0	1(16.7)	1(16.7)	2(33.3)	1(16.7)	6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2(22.2)	0	0	1(11.1)	1(11.1)	2(22.2)	3(33.3)	9	126.073 (.000)
	100만원~200만원	2(10.0)	1(5.0)	0	0	3(15.0)	13(65.0)	1(5.0)	20	
	200만원~300만원	8(7.0)	7(6.1)	8(7.0)	5(4.3)	52(45.2)	35(30.4)	0	115	
	300만원~400만원	14(6.1)	48(21.1)	8(3.5)	6(2.6)	91(39.9)	60(26.3)	1(0.4)	228	
	400만원 이상	1(3.4)	4(13.8)	3(10.3)	0	16(55.2)	5(17.2)	0	2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중년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구조를 파악해보기 위해 직·간접으로

자주 만나는 대상을 2순위까지 질문하였음

-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는 대상(1순위)은 모두 직장동료인 것으로 나타났음. 집단 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응답자 특성은 '소득수준'이었음
- '소득수준'의 응답비율을 보면 '친구'를 가장 자주 만나는 집단은 '100만원 이하'(33.3%), '100~200만원'(65%)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 집단은 모두 '직장동료'를 가장 자주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는 모두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고 40대 40.8%, 50대 40.5%로 큰 차이가 없었음
- '자치구'는 동구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직장동료라고 응답했고 동구는 친구(33.3%)로 응답함
- '학력'은 중졸 이하(66.7%), 고졸 집단(33.3%)은 친구로 응답했고 대졸(50.5%), 대학원졸 집단(44.4%)은 직장동료로 응답해 집단별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근로유형'은 자영업(43.6%), 프리랜서(40.7%), 상용근로자(정규직)(35.9%), 상용근로자(계약직)(55.1%)가 직장동료로 응답했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42.9%), 무직(33.3%)는 친구로 응답하였음

(3) '직접' 만나는 빈도 높은 대상 (2순위)

- 직접 만나는 빈도가 높은 대상 2순위는 전반적으로 친구라고 응답하였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근로유형'과 '소득수준'임
- '근로유형'은 모든 집단이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 2순위로 친구를 응답하였으나 상용근로자(정규직)의 직장동료(26.9%),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의 형제자매(32.3%) 응답이 근소한 차이를 보임
- '소득수준'은 친구로 응답한 집단이 가장 많았으나 100만원 이하 집단

은 부모(60%),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형제자매(43.8%)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연령대’는 모두 친구를 2순위로 응답하였으며 ‘자치구’ 역시 친구가 2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학력은 중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집단이 모두 친구로 응답하였음. 중졸 이하는 직장동료(33.3%)가 2순위 대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표 2-6] 직접 만나는 빈도가 높은 대상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	계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8(4.3)	22(11.8)	20(10.7)	20(10.7)	44(23.5)	73(39.0)	187	8.795 (.118)
	만 50~59세	19(10.2)	25(13.4)	28(15.1)	20(10.8)	32(17.2)	62(33.3)	186	
자치구	동 구	5(6.5)	7(9.1)	15(19.5)	10(13.0)	15(19.5)	25(32.5)	77	37.004 (.012)
	중 구	6(7.9)	11(14.5)	11(14.5)	11(14.5)	15(19.7)	22(28.9)	76	
	서 구	6(8.6)	14(20.0)	4(5.7)	1(1.4)	22(31.4)	23(32.9)	70	
	유성구	5(6.6)	6(7.9)	15(19.7)	9(11.8)	13(17.1)	28(36.8)	76	
	대덕구	5(6.8)	9(12.2)	3(4.1)	9(12.2)	11(14.9)	37(50.0)	74	
학력	중졸 이하	0	2(33.3)	0	1(16.7)	2(33.3)	1(16.7)	6	13.817 (.539)
	고졸	13(7.2)	21(11.7)	23(12.8)	20(11.1)	46(25.6)	57(31.7)	180	
	대졸	12(7.1)	22(12.9)	24(14.1)	17(10.0)	26(15.3)	69(40.6)	170	
	대학원졸	2(11.8)	2(11.8)	1(5.9)	2(11.8)	2(11.8)	8(47.1)	17	
근로 유형	자영업	7(13.0)	5(9.3)	3(5.6)	10(18.5)	8(14.8)	21(38.9)	54	82.313 (.000)
	프리랜서	4(15.4)	3(11.5)	4(15.4)	4(15.4)	3(11.5)	8(30.8)	26	
	상용근로자(정규직)	9(4.6)	27(13.7)	32(16.2)	10(5.1)	53(26.9)	66(33.5)	197	
	상용근로자(계약직)	1(1.7)	11(18.3)	8(13.3)	4(6.7)	8(13.3)	28(46.7)	6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3(9.7)	1(3.2)	1(3.2)	10(32.3)	4(12.9)	12(38.7)	31	
	무직	3(60.0)	0	0	2(40.0)	0	0	5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3(60.0)	0	0	2(40.0)	0	0	5	74.124 (.000)
	100만원~200만원	2(12.5)	0	1(6.3)	7(43.8)	3(18.8)	3(18.8)	16	
	200만원~300만원	10(9.1)	13(11.8)	5(4.5)	12(10.9)	24(21.8)	46(41.8)	110	
	300만원~400만원	11(5.1)	27(12.4)	38(17.5)	16(7.4)	49(22.6)	76(35.0)	217	
	400만원 이상	1(4.0)	7(28.0)	4(16.0)	3(12.0)	0	10(40.0)	25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4) '간접(전화, 문자등) 연락하는 빈도 높은 대상 (1순위)

[표 2-7]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대상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	없음	계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37(18.4)	62(30.8)	22(10.9)	15(7.5)	7(3.5)	54(26.9)	4(2.0)	201	22.415 (.001)
	만 50~59세	26(13.0)	58(29.0)	53(26.5)	8(4.0)	14(7.0)	39(19.5)	2(1.0)	200	
차차구	동 구	13(16.0)	17(21.0)	15(18.5)	2(2.5)	4(4.9)	28(34.6)	2(2.5)	81	29.808 (.191)
	중 구	10(12.5)	24(30.0)	14(17.5)	3(3.8)	3(3.8)	24(30.0)	2(2.5)	80	
	서 구	14(17.5)	25(31.3)	20(25.0)	5(6.3)	2(2.5)	13(16.3)	1(1.3)	80	
	유성구	10(12.5)	32(40.0)	12(15.0)	5(6.3)	6(7.5)	15(18.8)	0	80	
	대덕구	16(20.0)	22(27.5)	14(17.5)	8(10.0)	6(7.5)	13(16.3)	1(1.3)	80	
학력	중졸 이하	1(16.7)	1(16.7)	1(16.7)	0	1(16.7)	2(33.3)	0	6	17.477 (.291)
	고졸	42(21.5)	53(27.2)	30(15.4)	16(8.2)	9(4.6)	42(21.5)	3(1.5)	195	
	대졸	19(10.4)	60(33.0)	40(22.0)	6(3.3)	10(5.5)	44(24.2)	3(1.6)	182	
	대학원졸	1(5.6)	6(33.3)	4(22.2)	1(5.6)	1(5.6)	5(27.8)	0	18	
근로 유형	자영업	7(12.7)	15(27.3)	14(25.5)	5(9.1)	1(1.8)	13(23.6)	0	55	96.608 (.000)
	프리랜서	4(14.8)	6(22.2)	9(33.3)	0	3(11.1)	4(14.8)	1(3.7)	27	
	상용근로자(정규직)	39(18.7)	73(34.9)	35(16.7)	13(6.2)	7(3.3)	40(19.1)	2(1.0)	209	
	상용근로자(계약직)	8(11.6)	23(33.3)	12(17.4)	2(2.9)	5(7.2)	19(27.5)	0	69	
	일용근로자/이른바이트	4(11.4)	3(8.6)	5(14.3)	1(2.9)	5(14.3)	16(45.7)	1(2.9)	35	
	무직	1(16.7)	0	0	2(33.3)	0	1(16.7)	2(33.3)	6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11.1)	0	0	2(22.2)	0	3(33.3)	3(33.3)	9	129.062 (.000)
	100만원~200만원	3(15.0)	2(10.0)	1(5.0)	2(10.0)	0	11(55.0)	1(5.0)	20	
	200만원~300만원	20(17.4)	23(20.0)	19(16.5)	4(3.5)	14(12.2)	35(30.4)	0	115	
	300만원~400만원	38(16.7)	80(35.1)	47(20.6)	15(6.6)	6(2.6)	40(17.5)	2(0.9)	228	
	400만원 이상	1(3.4)	15(51.7)	8(27.6)	0	1(3.4)	4(13.8)	0	2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1순위 대상은 전반적으로 배우자로 응답한 집단이 많았으며 친구, 자녀, 형제자매로 응답한 집단도 있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근로유형'과 '소득수준' 임
- '근로유형'에서 배우자를 1순위로 응답한 집단은 자영업(27.3%), 상용근로자(정규직)(34.9%), 상용근로자(계약직)(33.3%)였으며 프리랜서는

자녀(33.3%),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는 친구(45.7%), 무직은 형제자매(33.3%)가 간접 연락 1순위 대상으로 나타났음

-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200만원~300만원 집단은 각각 33.3%, 55.0%, 30.4%로 친구가 가장 많았고, 300만원~400만원, 400만원 이상 집단은 배우자가 각각 35.1%, 51.7%로 가장 많았음
- '연령대'는 40대 30.8%, 50대 29.0%로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자치구'는 동구(34.6%)의 친구를 제외하고 중구(30.0%), 서구(31.3%), 유성구(40.0%), 대덕구(27.5%)는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음
- '학력'은 고졸(27.2%), 대졸(33.0%), 대학원졸(33.3%)이 배우자였고 중졸 이하는 친구(33.3%)로 나타났음

(4) '간접(전화, 문자등) 연락하는 빈도 높은 대상 (2순위)

-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2순위 대상은 전반적으로 자녀라고 응답한 집단이 많았으나 부모, 형제자매, 직장동료, 친구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임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소득수준' 임
-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60.0%), 200만원~300만원(30.6%), 300만원~400만원(30.6%) 집단에서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형제자매(41.2%), 400만원 이상 집단은 자녀(5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연령대'는 40대(30.1%), 50대(25.3%) 모두 자녀가 가장 많았고, '자치구'는 중구(34.6%), 서구(27.0%), 유성구(38.2%)가 자녀, 동구(22.1%)는 형제자매, 대덕구(25.0%)는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학력'은 중졸 이하(33.3%)가 직장동료, 친구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고졸(24.7%), 대졸(30.9%), 대학원졸(27.8%)는 자녀를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대상 2순위로 선택하였음

- ‘근로유형’은 자영업이 형제자매와 친구를 각각 22.2%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26.9%),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30.3%), 무직(75.0%)는 친구, 상용근로자(정규직)(34.0%), 상용근로자(계약직)(27.0%)는 자녀였음

[표 2-8]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대상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	계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33(18.0)	14(7.7)	55(30.1)	29(15.8)	15(8.2)	37(20.2)	7.886 (.163)
	만 50~59세	33(17.0)	33(17.0)	49(25.3)	30(15.5)	13(6.7)	36(18.6)	
자차구	동 구	16(20.8)	11(14.3)	12(15.6)	17(22.1)	8(10.4)	13(16.9)	37.670 (.010)
	중 구	6(7.7)	8(10.3)	27(34.6)	14(17.9)	10(12.8)	13(16.7)	
	서 구	19(25.7)	11(14.9)	20(27.0)	10(13.5)	5(6.8)	9(12.2)	
	유성구	9(11.8)	8(10.5)	29(38.2)	9(11.8)	1(1.3)	20(26.3)	
	대덕구	16(22.2)	9(12.5)	16(22.2)	9(12.5)	4(5.6)	18(25.0)	
학력	중졸 이하	0	0	1(16.7)	1(16.7)	2(33.3)	2(33.3)	17.477 (.291)
	고졸	28(15.7)	22(12.4)	44(24.7)	35(19.7)	13(7.3)	36(20.2)	
	대졸	36(20.6)	21(12.0)	54(30.9)	22(12.6)	11(6.3)	31(17.7)	
	대학원졸	2(11.1)	4(22.2)	5(27.8)	1(5.6)	2(11.1)	4(22.2)	
근로 유형	자영업	11(20.4)	5(9.3)	11(20.4)	12(22.2)	3(5.6)	12(22.2)	46.019 (.006)
	프리랜서	6(23.1)	6(23.1)	5(19.2)	1(3.8)	1(3.8)	7(26.9)	
	상용근로자(정규직)	37(18.8)	25(12.7)	67(34.0)	25(12.7)	16(8.1)	27(13.7)	
	상용근로자(계약직)	5(7.9)	11(17.5)	17(27.0)	11(17.5)	5(7.9)	14(22.2)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6(18.2)	0	4(12.1)	10(30.3)	3(9.1)	10(30.3)	
	무직	1(25.0)	0	0	0	0	3(75.0)	4
소득	100만원 이하	2(40.0)	0	0	0	0	3(60.0)	62.543 (.000)
	100만원~200만원	3(17.6)	0	2(11.8)	7(41.2)	3(17.6)	2(11.8)	
	200만원~300만원	18(16.2)	7(6.3)	20(18.0)	24(21.6)	8(7.2)	34(30.6)	
	300만원~400만원	18(16.2)	7(6.3)	20(18.0)	24(21.6)	8(7.2)	34(30.6)	
	400만원 이상	2(17.5)	4(14.3)	14(50.0)	0	1(3.6)	7(25.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5) 가족관계 만족도

[표 2-9]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점)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395	10 (2.5)	36 (9.1)	131 (33.2)	149 (37.7)	69 (17.5)	3.58 (0.964)

- 가족관계 만족도는 평균 3.58점으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자치구’, ‘근로유형’, ‘소득수준’ 임
- ‘자치구’는 동구(44.4%), 중구(47.4%)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서구(46.2%), 유성구(33.8%), 대덕구(57.0%)는 약간 만족이 가장 많았음. 평균으로 비교하면 유성구가 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19점으로 가장 낮았음
- ‘근로유형’은 자영업 집단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집단이 2.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수준’은 400만원 이상 집단이 3.9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2.58점으로 가장 낮았음
- ‘연령대’는 40대 3.56점, 50대 3.61점으로 나이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력’도 최고 대졸 3.75점, 최저 고졸 3.43점으로 학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았음

[표 2-10] 가족관계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가족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만 40~49세	4	7(3.6)	16(8.1)	67(34.0)	74(37.6)	33(16.8)	2.248 (.690)	3.56
	만 50~59세	2	3(1.5)	20(10.1)	64(32.3)	75(37.9)	36(18.2)		3.61
자차구	동 구	1	5(6.3)	9(11.3)	32(40.0)	25(31.3)	9(11.3)	55.628 (.000)	3.30
	중 구	2	3(3.8)	13(16.7)	37(47.4)	16(20.5)	9(11.5)		3.19
	서 구	2	1(1.3)	6(7.7)	19(24.4)	36(46.2)	16(20.5)		3.77
	유성구	0	0	3(3.8)	26(32.5)	27(33.8)	24(30.0)		3.90
	대덕구	1	1(1.3)	5(6.3)	17(21.5)	45(57.0)	11(13.9)		3.76
학력	중졸 이하	0	0	2(33.3)	0	3(50.0)	1(16.7)	21.888 (.039)	3.50
	고졸	3	6(3.1)	19(9.9)	74(38.5)	72(37.5)	21(10.9)		3.43
	대졸	3	4(2.2)	14(7.8)	49(27.4)	68(38.0)	44(24.6)		3.75
	대학원졸	0	0	1(5.6)	8(44.4)	6(33.3)	3(16.7)		3.61
근로 유형	자영업	0	3(5.5)	2(3.6)	9(16.4)	26(47.3)	15(27.3)	62.278 (.000)	3.87
	프리랜서	1	1(3.8)	2(7.7)	10(38.5)	10(38.5)	3(11.5)		3.46
	상용근로자(정규직)	2	1(0.5)	10(4.8)	76(36.7)	87(42.0)	33(15.9)		3.68
	상용근로자(계약직)	0	4(5.8)	9(13.0)	24(34.8)	18(26.1)	14(20.3)		3.42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2	1(3.0)	12(36.4)	10(30.3)	7(21.2)	3(9.1)		2.97
	무직	1	0	1(20.0)	2(40.0)	1(20.0)	1(20.0)		3.4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3	0	2(33.3)	2(33.3)	1(16.7)	1(16.7)	61.882 (.000)	3.17
	100만원~200만원	1	2(10.5)	8(42.1)	5(26.3)	4(21.1)	0		2.58
	200만원~300만원	1	4(3.5)	16(14.0)	33(28.9)	41(36.0)	20(17.5)		3.50
	300만원~400만원	1	4(1.8)	8(3.5)	81(35.7)	97(42.7)	37(16.3)		3.68
	400만원 이상	0	0	2(6.9)	10(34.5)	6(20.7)	11(37.9)		3.9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6)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표 2-1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단위: 명, %, 점)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400	5 (1.3)	29 (7.3)	148 (37.0)	175 (43.8)	43 (10.8)	3.56 (0.827)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평균 3.56점으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근로유형’, ‘소득수준’ 임
- ‘근로유형’은 자영업 집단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무직 집단이 2.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무직 집단의 만족도 점수가 모든 집단 중 가장 낮게 나온 것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 ‘소득수준’은 400만원 이상 집단이 3.6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100만원 이하 집단은 2.25점으로 가장 낮았음
- ‘연령대’는 40대 3.59점, 50대 3.52점으로 나이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치구’도 동구의 3.32점이 가장 낮고, 유성구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음. ‘학력’은 대학원졸이 3.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 이하가 3.50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2-12]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만 40~49세	2(1.0)	13(6.5)	70(35.0)	95(47.5)	20(10.0)	2.438 (.656)	3.59
	만 50~59세	3(1.5)	16(8.0)	78(39.0)	80(40.0)	23(11.5)		3.52
자치구	동 구	2(2.5)	10(12.3)	31(38.3)	36(44.4)	2(2.5)	26.479 (.048)	3.32
	중 구	2(2.5)	9(11.4)	34(43.0)	28(35.4)	6(7.6)		3.34
	서 구	1(1.3)	5(6.3)	29(36.3)	32(40.0)	13(16.3)		3.64
	유성구	0	3(3.8)	26(32.5)	39(48.8)	12(15.0)		3.75
	대덕구	0	2(2.5)	28(35.0)	40(50.0)	10(12.5)		3.73
학력	중졸 이하	0	2(3.3)	1(16.7)	1(16.7)	2(33.3)	20.401 (.060)	3.50
	고졸	5(2.6)	15(7.7)	73(37.4)	78(40.0)	24(12.3)		3.52
	대졸	0	11(6.1)	67(37.0)	89(49.2)	14(7.7)		3.59
	대학원졸	0	1(5.6)	7(38.9)	7(38.9)	3(16.7)		3.67
근로 유형	자영업	0	0	22(40.0)	27(49.1)	6(10.9)	152.079 (.000)	3.71
	프리랜서	0	4(15.4)	9(34.6)	10(38.5)	3(11.5)		3.46
	상용근로자(정규직)	1(0.5)	9(4.3)	83(39.7)	89(42.6)	27(12.9)		3.63
	상용근로자(계약직)	0	8(11.6)	20(29.0)	38(55.1)	3(4.3)		3.52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2.9)	8(22.9)	12(34.3)	10(28.6)	4(11.4)		3.23
	무직	3(50.0)	0	2(33.3)	1(16.7)	0		2.17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4(50.0)	0	2(25.0)	2(25.0)	0	238.882 (.000)	2.25
	100만원~200만원	0	11(55.0)	7(35.0)	1(5.0)	1(5.0)		2.60
	200만원~300만원	0	10(8.7)	45(39.1)	44(38.3)	16(13.9)		3.57
	300만원~400만원	1(0.4)	7(3.1)	84(36.8)	113(49.6)	23(10.1)		3.66
	400만원 이상	0	1(3.4)	10(34.5)	15(51.7)	3(10.3)		3.6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7)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1순위)

[표 2-13]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집	직장	공원 거리	도서관	문화공간	평생교육 기관	행정복지 센터	편의점	유흥시설	카이 제급	
연령대	만 40~49세	52(25.9)	143(71.1)	4(2.0)	0	0	20	0	2(1.0)	0	4.910 (.427)
	만 50~59세	48(24.0)	148(74.0)	2(1.0)	0	1(0.5)	0	0	0	1(0.5)	
자치구	동 구	23(28.4)	54(66.7)	3(3.7)	0	0	0	0	1(1.2)	0	30.800 (.058)
	중 구	30(37.5)	48(60.0)	2(2.5)	0	0	0	0	0	0	
	서 구	13(16.3)	66(82.5)	0	0	1(1.3)	0	0	0	0	
	유성구	21(26.3)	59(73.8)	0	0	0	0	0	0	0	
	대덕구	13(16.3)	64(80.0)	1(1.3)	0	0	0	0	1(1.3)	1(1.3)	
학력	중졸 이하	3(50.0)	3(50.0)	0	0	0	0	0	0	0	25.602 (.042)
	고졸	66(33.8)	123(63.1)	3(1.5)	0	1(0.5)	0	0	2(1.0)	0	
	대졸	27(14.8)	151(83.0)	3(1.6)	0	0	0	0	0	1(0.5)	
	대학원졸	4(22.2)	14(77.8)	0	0	0	0	0	0	0	
근로 유형	자영업	8(14.5)	47(85.5)	0	0	0	0	0	0	0	80.144 (.000)
	프리랜서	4(14.8)	21(77.8)	2(7.4)	0	0	0	0	0	0	
	상용근로자(정규직)	57(27.3)	150(71.8)	0	0	1(0.5)	0	0	1(0.5)	0	
	상용근로자(계약직)	14(20.3)	52(75.4)	2(2.9)	0	0	0	0	0	1(1.4)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3(37.1)	21(60.0)	0	0	0	0	0	1(2.9)	0	
	무직	4(66.7)	0	2(33.3)	0	0	0	0	0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6(66.7)	0	3(33.3)	0	0	0	0	0	0	91.957 (.000)
	100만원~200만원	10(50.0)	9(45.0)	1(5.0)	0	0	0	0	0	0	
	200만원~300만원	23(20.0)	90(78.3)	0	0	0	0	0	1(0.9)	1(0.9)	
	300만원~400만원	5(24.6)	16(82.8)	2(9.9)	0	1(4.9)	0	0	1(4.9)	0	
	400만원 이상	5(17.2)	24(82.8)	0	0	0	0	0	0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1순위 대상은 전반적으로 직장으로 응답한 집단이 많았으며 집, 직장으로 응답한 집단도 있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근로유형’과 ‘소득수준’ 임
- ‘근로유형’에서 무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모두 직장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무직 집단은 66.7%가 집이라고 응답함
- ‘소득수준’에서는 100만원 이하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모두 직장이 가장 많았음. 100만원 이하 집단의 66.7%는 하루 중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함

(8)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2순위)

[표 2-14]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집	작장	공원 거리	도서관	문화공간	평생교육 기관	행정복지 센터	편의점	유흥시설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112(55.7)	43(21.4)	6(3.0)	1(0.5)	9(4.5)	1(0.5)	0	7(3.5)	22(10.9)	8.351 (.303)
	만 50~59세	123(61.5)	38(19.0)	13(6.5)	2(1.0)	6(3.0)	0	0	6(3.0)	12(6.0)	
차차구	동 구	49(60.5)	15(18.5)	3(3.7)	0	5(6.2)	0	0	2(2.5)	7(8.6)	37.585 (.107)
	중 구	40(50.0)	23(28.8)	3(3.8)	0	3(3.8)	0	0	1(1.3)	10(12.5)	
	서 구	50(62.5)	11(13.8)	6(7.5)	2(2.5)	3(3.8)	0	0	3(3.8)	5(6.3)	
	유성구	45(56.3)	20(25.0)	4(5.0)	1(1.3)	4(5.0)	0	0	0	6(7.5)	
	대덕구	51(63.8)	12(15.0)	3(3.8)	0	0	1(1.3)	0	7(8.8)	6(7.5)	
학력	중졸 이하	3(50.0)	1(16.7)	0	0	0	0	0	2(33.3)	0	51.286 (.000)
	고졸	100(51.3)	54(27.7)	12(6.2)	2(1.0)	1(0.5)	0	0	9(4.6)	17(8.7)	
	대졸	120(65.9)	23(12.6)	6(3.3)	1(0.5)	13(7.1)	1(0.5)	0	2(1.1)	16(8.8)	
	대학원졸	12(66.7)	3(16.7)	1(5.6)	0	1(5.6)	0	0	0	1(5.6)	
근로 유형	자영업	34(61.8)	8(14.5)	2(3.6)	0	2(3.6)	1(1.8)	0	1(1.8)	7(12.7)	127.997 (.000)
	프리랜서	20(74.1)	1(3.7)	1(3.7)	0	5(18.5)	0	0	0	0	
	상용근로자(정규직)	118(56.5)	55(26.3)	6(2.9)	3(1.4)	6(2.9)	0	0	9(4.3)	12(5.7)	
	상용근로자(계약직)	47(68.1)	14(20.3)	3(4.3)	0	1(1.4)	0	0	0	4(5.8)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6(45.7)	3(8.6)	3(8.6)	0	1(2.9)	0	0	2(5.7)	10(28.6)	
	무직	0	0	4(66.7)	0	0	0	0	1(16.7)	1(16.7)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11.1)	0	6(66.7)	0	0	0	0	1(11.1)	1(11.1)	139.327 (.000)
	100만원~200만원	6(30.0)	3(15.0)	2(10.0)	0	0	0	0	2(10.0)	7(35.0)	
	200만원~300만원	72(62.6)	18(15.7)	7(6.1)	1(0.9)	5(4.3)	0	0	0	12(10.4)	
	300만원~400만원	138(60.5)	56(24.6)	3(1.3)	2(0.9)	8(3.5)	0	0	10(4.4)	11(4.8)	
	400만원 이상	18(62.1)	4(13.8)	1(3.4)	0	2(6.9)	1(3.4)	0	0	3(10.3)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2순위 대상은 전반적으로 집으로 응답한 집단이 많았으며 공원/거리, 유흥시설로 응답한 집단이 있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학력’에서 모든 집단은 집이 가장 많았으나 고졸 집단에서는 집 외의 다른 장소로 분산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음
- ‘근로유형’에서 무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모두 집을 2순위로 응답하였고 무직 집단은 66.7%가 공원/거리라고 응답함

- ‘소득수준’에서 100만원 이하 집단은 공원/거리(66.7%),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유흥시설(35.0%)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집단은 집이 가장 많았음

(9)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3순위)

[표 2-15]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3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집	작장	공원 거리	도서관	문화공간	평생교육 기관	행정복지 센터	편의점	유흥시설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17(9.4)	1(0.6)	25(13.9)	7(3.9)	25(13.9)	0	1(0.6)	17(9.4)	87(48.3)	3.839 (.871)
	만 50~59세	21(11.5)	2(1.1)	26(14.2)	8(4.4)	28(15.3)	1(0.5)	0	20(10.9)	77(42.1)	
차차구	동 구	9(12.5)	2(2.8)	14(19.4)	1(1.4)	12(16.7)	0	0	3(4.2)	31(43.1)	33.804 (.380)
	중 구	7(8.8)	0	14(17.5)	5(6.3)	13(16.3)	1(1.3)	0	5(6.3)	35(43.8)	
	서 구	10(14.5)	1(1.4)	10(14.5)	3(4.3)	6(8.7)	0	1(1.4)	8(11.6)	30(43.5)	
	유성구	7(9.7)	0	9(12.5)	3(4.2)	11(15.3)	0	0	9(12.5)	33(45.8)	
	대덕구	5(7.1)	0	4(5.7)	3(4.3)	11(15.7)	0	0	12(17.1)	35(50.0)	
학력	중졸 이하	0	0	0	1(16.7)	3(50.0)	0	0	1(16.7)	1(16.7)	47.322 (.003)
	고졸	11(6.0)	3(1.6)	25(13.6)	4(2.2)	16(8.7)	0	1(0.5)	26(14.1)	98(53.3)	
	대졸	25(16.0)	0	24(15.4)	9(5.8)	29(18.6)	1(0.6)	0	8(5.1)	60(38.5)	
	대학원졸	2(11.8)	0	2(11.8)	1(5.9)	0	0	0	2(11.8)	5(29.4)	
근로 유형	자영업	9(19.6)	0	9(19.6)	1(2.2)	7(15.2)	0	0	4(8.7)	16(34.8)	50.493 (.124)
	프리랜서	3(11.5)	0	3(11.5)	4(15.4)	2(7.7)	0	0	1(3.8)	13(50.0)	
	상용근로자(정규직)	16(8.3)	2(1.0)	23(12.0)	9(4.7)	25(13.0)	0	1(0.5)	26(13.5)	90(46.9)	
	상용근로자(계약직)	5(8.3)	1(1.7)	11(18.3)	0	9(15.0)	0	0	5(8.3)	29(48.3)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3(8.8)	0	5(14.7)	1(2.9)	10(29.4)	1(2.9)	0	1(2.9)	13(38.2)	
무직	2(40.0)	0	0	0	0	0	0	0	3(60.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2(25.0)	0	0	0	1(12.5)	0	1(12.5)	1(12.5)	3(37.5)	74.294 (.000)
	100만원~200만원	2(11.1)	0	3(16.7)	0	6(33.3)	0	0	2(11.1)	5(27.8)	
	200만원~300만원	13(12.4)	1(1.0)	15(14.3)	2(1.9)	14(13.3)	0	0	7(6.7)	53(50.5)	
	300만원~400만원	15(7.2)	2(1.0)	29(14.0)	10(4.8)	29(14.0)	1(0.5)	0	23(11.1)	98(47.3)	
	400만원 이상	6(24.0)	0	4(16.0)	3(12.0)	3(12.0)	0	0	4(16.0)	5(20.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3순위 대상은 전반적으로 유흥

시설이 가장 많았음. 유흥시설 외 문화공간, 집으로 응답한 집단이 있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소득수준’임
- ‘소득수준’에서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문화공간(33.3%)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400만원 이상 집단은 집(24.0%)이 가장 많았음. 나머지 집단은 유흥시설이었음
-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장소를 요약하면 [표 2-16]과 같음
- 2순위까지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고 3순위에 서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대전지역 대다수 중장년 남성의 일상이 매우 단조로운 공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중장년 남성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책적 유인방법을 고려해볼 만한 지점임

[표 2-16]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 순위별 요약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장소	직장	집	유흥시설
응답빈도 (비율)	291 (72.6) ¹⁾	235 (58.6)	164 (45.2)

1) 1순위와 2순위는 모든 대상자 (N=401)가 응답하였고 3순위는 일부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음 (N=363)

(10) 여가나 취미활동 여부 및 종류 (복수응답)

[표 2-17] 여가나 취미 활동 여부 및 종류 (복수응답) - 요약

(단위: 명, %)

계	활동 유무		여가 및 취미활동 종류 (복수응답)								
	없음	있음	운동 등산	문화	자원 봉사	낚시	수집	예술	게임	반려 동물	종교 활동
401	156 (38.9)	245 (61.1)	154	88	8	35	4	2	34	19	16

-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61.1%로 나타났음. 가장 많은 여가나 취미활동은 운동/등산이었으며 문화, 낚시, 게임 순이었음
- 다만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집단에서 운동/등산, 문화 항목을 선택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중장년 남성들의 여가나 취미활동이 설문결과처럼 단조로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다양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는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18] 여가나 취미 활동 여부 및 종류 (복수응답)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취미활동 여부		계	운동 등산	문화	자원 봉사	낚시	수집	예술	게임	반려 동물	종교 활동	
	없음	있음											
연령대	만 40~49세	63(31.3)	137(68.7)	205	94(45.9)	52(25.4)	3(1.5)	15(7.3)	2(1.0)	1(0.5)	21(10.2)	10(4.9)	7(3.4)
	만 50~59세	93(46.5)	108(53.5)	155	60(46.5)	36(38.7)	5(3.2)	20(12.9)	2(1.3)	1(0.6)	13(8.4)	9(5.8)	9(5.8)
자치구	동 구	32(39.5)	49(60.5)	74	33(44.6)	20(27.0)	0	5(6.8)	0	0	8(10.8)	5(6.8)	3(4.1)
	중 구	28(35.0)	52(65.0)	90	35(38.9)	24(26.7)	1(1.1)	7(7.8)	1(1.1)	1(1.1)	7(7.8)	9(10.0)	5(5.6)
	서 구	36(45.0)	44(55.0)	58	30(51.7)	12(20.7)	2(3.4)	4(6.9)	0	1(1.7)	6(10.3)	2(3.4)	1(1.7)
	유성구	29(36.3)	51(63.7)	78	33(42.3)	16(20.5)	3(3.8)	16(20.5)	2(2.6)	0	3(3.8)	2(2.6)	3(3.8)
	대덕구	31(38.8)	49(61.2)	60	23(38.3)	16(26.7)	2(3.3)	3(5.0)	1(1.7)	0	10(16.7)	1(1.7)	4(6.7)
학력	중졸 이하	3(50.0)	3(50.0)	3	1(33.3)	0	0	1(33.3)	0	0	1(33.3)	0	0
	고졸	104(53.3)	91(46.7)	121	57(47.1)	19(15.7)	3(2.5)	15(12.4)	1(0.8)	0	16(13.2)	5(4.1)	5(4.1)
	대졸	46(25.3)	136(74.7)	209	85(40.7)	60(28.7)	4(1.9)	18(8.6)	3(1.4)	2(1.0)	15(7.2)	12(5.7)	10(4.8)
	대학원졸	3(16.7)	15(83.3)	27	11(40.7)	9(33.3)	1(3.7)	1(3.7)	0	0	2(7.4)	2(7.4)	1(3.7)
근로 유형	자영업	19(34.5)	36(65.5)	62	23(37.1)	18(29.0)	2(3.2)	8(12.9)	1(1.6)	1(1.6)	6(9.7)	1(1.6)	2(3.2)
	프리랜서	2(7.4)	25(92.6)	40	14(35.0)	12(30.0)	0	4(10.0)	0	1(2.5)	4(10.0)	4(10.0)	1(2.5)
	상용근로자(정규직)	78(37.3)	131(62.7)	182	83(45.6)	40(22.0)	5(2.7)	15(8.2)	2(1.1)	0	17(9.3)	12(6.6)	8(4.4)
	상용근로자(계약직)	32(46.4)	37(53.6)	51	22(43.1)	13(25.5)	1(2.0)	4(7.8)	1(2.0)	0	5(9.8)	1(2.0)	4(7.8)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21(60.0)	14(40.0)	23	11(47.8)	4(17.4)	0	4(17.4)	0	0	2(8.7)	1(4.3)	1(4.3)
	무직	4(66.7)	2(33.3)	2	1(50.0)	1(50.0)	0	0	0	0	0	0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6(66.7)	3(33.3)	3	1(33.3)	1(33.3)	0	0	0	1(33.3)	0	0	0
	100만원~200만원	17(85.0)	3(15.0)	4	0	1(25.0)	0	0	0	0	2(50.0)	1(25.0)	0
	200만원~300만원	47(40.9)	68(59.1)	104	47(45.2)	22(21.2)	1(1.0)	14(13.5)	2(1.9)	0	7(6.7)	4(3.8)	7(6.7)
	300만원~400만원	81(35.5)	147(64.5)	214	89(41.6)	54(25.2)	6(2.8)	18(8.4)	2(0.9)	0	24(11.2)	12(5.6)	9(4.2)
	400만원 이상	5(17.2)	24(82.8)	35	17(48.6)	10(28.6)	1(2.9)	3(8.6)	0	1(2.9)	1(2.9)	2(5.7)	0

주1.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2. 문화 항목에 주어진 예시는 독서, 영화, 음악 등임

(11)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 시간, 귀찮음의 이유가 주로 많았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근로유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를 가장 많이 응답한 집단은 자영업(42.1%), 프리랜서(50.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52.4%) 집단이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집단은 상용근로자(정규직)(39.7%), 귀찮아서 안하는 집단은 상용근로자(계약직)(40.6%)이었음. 무직 집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와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각각 50%로 응답되었지만 응답자 수가 현저히 적어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수준’에서는 100만원 이하 집단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50.0%)가 가장 많았고, 100만원~200만원(64.7%), 400만원 이상(40.0%)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400만원 이상(40.0%)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동률), 200만원~300만원(42.6%)은 귀찮아서, 300만원~400만원(39.5%)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목할 부분은 모든 집단에서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온 항목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환경이 여가나 취미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음

[표 2-19]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응답자 특성별

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람과의 만남이 힘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귀찮아서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13(20.6)	3(4.8)	4(6.3)	18(28.6)	25(39.7)	7.061 (.133)
	만 50~59세	37(39.8)	3(3.2)	7(7.5)	21(22.6)	25(26.9)	
차차구	동 구	11(34.4)	2(6.3)	2(6.3)	5(15.6)	12(37.5)	7.895 (.952)
	중 구	10(35.7)	1(3.6)	1(3.6)	6(21.4)	10(35.7)	
	서 구	9(25.0)	2(5.6)	3(8.3)	10(27.8)	12(33.3)	
	유성구	12(41.4)	0	2(6.9)	8(27.6)	7(24.1)	
	대덕구	8(25.8)	1(3.2)	3(9.7)	10(32.3)	9(29.0)	
학력	중졸 이하	2(66.7)	0	0	0	1(33.3)	9.288 (.678)
	고졸	30(28.8)	5(4.8)	9(8.7)	22(21.2)	38(36.5)	
	대졸	17(37.0)	1(2.2)	2(4.3)	16(34.8)	10(21.7)	
	대학원졸	1(33.3)	0	0	1(33.3)	1(33.3)	
근로 유형	자영업	8(42.1)	0	2(10.5)	3(15.8)	6(31.6)	63.623 (.000)
	프리랜서	1(50.0)	1(50.0)	0	0	0	
	상용근로자(정규직)	18(23.1)	3(3.8)	4(5.1)	31(39.7)	22(28.2)	
	상용근로자(계약직)	10(31.3)	0	4(12.5)	5(15.6)	13(40.6)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1(52.4)	0	1(4.8)	0	9(42.9)	
	무직	2(50.0)	2(50.0)	0	0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2(33.3)	3(50.0)	0	0	1(16.7)	67.679 (.000)
	100만원~200만원	11(64.7)	0	1(5.9)	0	5(29.4)	
	200만원~300만원	13(27.7)	3(6.4)	6(12.8)	5(10.6)	20(42.6)	
	300만원~400만원	22(27.2)	0	4(4.9)	32(39.5)	23(28.4)	
	400만원 이상	2(40.0)	0	0	2(40.0)	1(20.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2) 경제적 환경

(1) 주요 소득 마련 방법

- 소득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근로소득이었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소득보다는 다른 소득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근로유형’은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집단에서는 100%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고 있었고, 무직은 국가지원금(66.7%)이 가장 많았음
-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에서 국가지원금(44.4%)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200만원은 아르바이트(65.0%)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표 2-20] 주요 소득 마련 방법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월 근로소득	부모의 지원	아르바이트	국가지원금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185(92.0)	1(0.5)	15(7.5)	0	4.990 (.173)
	만 50~59세	175(87.5)	1(0.5)	20(10.0)	4(2.0)	
자치구	동 구	69(85.2)	1(1.2)	9(11.1)	2(2.5)	18.196 (.110)
	중 구	68(85.0)	1(1.3)	11(13.8)	0	
	서 구	78(97.5)	0	2(2.5)	0	
	유성구	71(88.8)	0	9(11.3)	0	
	대덕구	74(92.5)	0	4(5.0)	2(2.5)	
학력	중졸 이하	3(50.0)	0	3(50.0)	0	23.748 (.005)
	고졸	167(85.6)	2(1.0)	23(11.8)	3(1.5)	
	대졸	172(94.5)	0	9(4.9)	1(0.5)	
	대학원졸	18(100.0)	0	0	0	
근로 유형	자영업	55(100.0)	0	0	0	802.000 (.000)
	프리랜서	27(100.0)	0	0	0	
	상용근로자(정규직)	209(100.0)	0	0	0	
	상용근로자(계약직)	69(100.0)	0	0	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0	0	35(100.0)	0	
	무직	0	2(33.3)	0	4(66.7)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2(22.2)	2(22.2)	1(11.1)	4(44.4)	374.909 (.000)
	100만원~200만원	7(35.0)	0	13(65.0)	0	
	200만원~300만원	96(83.5)	0	19(16.5)	0	
	300만원~400만원	226(99.1)	0	2(0.9)	0	
	400만원 이상	29(100.0)	0	0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2) 현재의 소득 수준 만족도

[표 2-21] 현재 소득 수준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401	62 (15.5)	82 (20.4)	154 (38.4)	93 (23.2)	10 (2.5)	2.77 (1.051)

- 현재의 소득 수준 만족도는 평균 2.77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학력’은 중졸 이하 집단이 매우 불만족(33.3%), 매우 만족(33.3%)로 극단적인 응답비율을 보였고, 다른 세 집단은 보통이 가장 많았음. 평균은 대학원졸이 2.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근로유형’은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집단이 2.23점으로 가장 낮았고, 상용근로자(정규직) 집단이 3.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은 400만원 이상 집단이 3.0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2.10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2-22] 현재 소득 수준의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만 40~49세	30(14.9)	42(20.9)	79(39.3)	46(22.9)	4(2.0)	0.625 (.960)	2.76
	만 50~59세	32(16.0)	40(20.0)	75(37.5)	47(23.5)	6(3.0)		2.78
자차구	동 구	15(18.5)	24(29.6)	29(35.8)	11(13.6)	2(2.5)	19.213 (.258)	2.52
	중 구	15(18.8)	11(13.8)	36(45.0)	18(22.5)	0		2.71
	서 구	11(13.8)	15(18.8)	29(36.3)	22(27.5)	3(3.8)		2.89
	유성구	9(11.3)	17(21.3)	27(33.8)	23(28.8)	4(5.0)		2.95
	대덕구	12(15.0)	15(18.8)	33(41.3)	19(23.8)	1(1.3)		2.78
학력	중졸 이하	2(33.3)	0	1(16.7)	1(16.7)	2(33.3)	45.037 (.000)	3.17
	고졸	20(10.3)	35(17.9)	83(42.6)	55(28.2)	2(1.0)		2.92
	대졸	35(19.2)	41(22.5)	64(35.2)	36(19.8)	6(3.3)		2.65
	대학원졸	5(27.8)	6(33.3)	6(33.3)	1(5.6)	0		2.17
근로 유형	자영업	15(27.3)	12(21.8)	15(27.3)	10(18.2)	3(5.5)	55.476 (.000)	2.53
	프리랜서	3(11.1)	7(25.9)	8(29.6)	8(29.6)	1(3.7)		2.89
	상용근로자(정규직)	17(8.1)	34(16.3)	91(43.5)	63(30.1)	4(1.9)		3.01
	상용근로자(계약직)	16(23.2)	14(20.3)	31(44.9)	7(10.1)	1(1.4)		2.46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1(31.4)	11(31.4)	8(22.9)	4(11.4)	1(2.9)		2.23
	무직	0	4(66.7)	1(16.7)	1(16.7)	0		2.5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11.1)	5(55.6)	2(22.2)	1(11.1)	0	45.474 (.000)	2.33
	100만원~200만원	8(40.0)	4(20.0)	6(30.0)	2(10.0)	0		2.10
	200만원~300만원	24(20.9)	27(23.5)	42(36.5)	19(16.5)	3(2.6)		2.57
	300만원~400만원	25(11.0)	41(18.0)	95(41.7)	64(28.1)	3(1.3)		2.91
	400만원 이상	4(13.8)	5(17.2)	9(31.0)	7(24.1)	4(13.8)		3.07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3) 가장 부담되는 고정지출항목

- 가장 부담이 되는 고정지출항목은 주거비와 자녀교육비 순으로 많았음. 자영업 집단과, 대졸 집단, 400만원 이상 집단만 자녀교육비가 주거비보다 더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집단은 주거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이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학력’에서 가장 지출이 부담되는 항목으로 대졸집단은 자녀교육비(46.2%)가 많았고, 다른 집단들은 주거비였음
- ‘근로유형’은 자영업 집단이 자녀교육비(47.3%)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른 집단은 주거비가 가장 많았음
- ‘소득수준’은 400만원 이상 집단만 자녀교육비(51.7%)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집단은 주거비가 가장 많았음

[표 2-23] 가장 부담이 되는 고정지출항목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주거비	식비	의료비	자기 개발비	경조사비	유형비	부모 부양비	자녀 교육비	취미 활동비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86(42.8)	105(5.0)	7(3.5)	1(0.5)	4(2.0)	2(1.0)	17(8.5)	67(33.3)	7(3.5)	11.072 (.198)
	만 50~59세	106(53.0)	12(6.0)	7(3.5)	1(0.5)	8(4.0)	2(1.0)	6(3.0)	54(27.0)	4(2.0)	
자취구	동 구	45(55.6)	2(2.5)	2(2.5)	1(1.2)	0	0	4(4.9)	25(30.9)	2(2.5)	60.513 (.002)
	중 구	35(43.8)	2(2.5)	6(7.5)	0	1(1.3)	0	1(1.3)	34(42.5)	1(1.3)	
	서 구	37(46.3)	4(5.0)	1(1.3)	0	3(3.8)	0	9(11.3)	25(31.3)	1(1.3)	
	유성구	33(41.3)	7(8.8)	1(1.3)	1(1.3)	6(7.5)	1(1.3)	7(8.8)	18(22.5)	6(7.5)	
	대덕구	42(52.5)	7(8.8)	4(5.0)	0	2(2.5)	3(3.8)	2(2.5)	19(23.8)	1(1.3)	
학력	중졸 이하	4(6.7)	0	0	0	0	0	0	2(3.3)	0	66.114 (.000)
	고졸	120(61.5)	12(6.2)	9(4.6)	2(1.0)	4(2.1)	2(1.0)	15(7.7)	29(14.9)	2(1.0)	
	대졸	60(33.0)	10(5.5)	3(1.6)	0	7(3.8)	2(1.1)	8(4.4)	84(46.2)	8(4.4)	
	대학원졸	8(4.4)	0	2(11.1)	0	1(5.6)	0	0	6(33.3)	1(5.6)	
근로 유형	자영업	15(27.3)	2(3.6)	1(1.8)	0	5(9.1)	0	3(5.5)	26(47.3)	3(5.5)	81.658 (.000)
	프리랜서	13(48.1)	1(3.7)	3(11.1)	0	1(3.7)	0	1(3.7)	8(29.6)	0	
	상용근로자(정규직)	101(48.3)	10(4.8)	7(3.3)	1(0.5)	6(2.9)	2(1.0)	15(7.2)	62(29.7)	5(2.4)	
	상용근로자(계약직)	33(47.8)	7(10.1)	1(1.4)	1(1.4)	0	1(1.4)	4(5.8)	21(30.4)	1(1.4)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28(80.0)	0	0	0	0	1(2.9)	0	4(11.4)	2(5.7)	
	무직	2(33.3)	2(33.3)	2(33.3)	0	0	0	0	0	0	
소득	100만원 이하	4(44.4)	2(22.2)	3(33.3)	0	0	0	0	0	0	71.004 (.000)
	100만원~200만원	14(70.0)	3(15.0)	0	0	0	0	1(5.0)	2(10.0)	0	
	200만원~300만원	60(52.2)	6(5.2)	4(3.5)	0	1(0.9)	0	7(6.1)	32(27.8)	5(4.3)	
	300만원~400만원	107(46.9)	10(4.4)	6(2.6)	2(0.9)	7(3.1)	4(1.8)	14(6.1)	72(31.6)	6(2.6)	
	400만원 이상	7(24.1)	1(3.4)	1(3.4)	0	4(13.8)	0	1(3.4)	15(51.7)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4) 앞으로의 소득 수준 예상

[표 2-24] 앞으로의 소득 수준 예상

(단위: 명, %, 점)

계	매우 나빠질 것	조금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조금 좋아질 것	매우 좋아질 것	평균 (표준편차)
401	23 (5.7)	80 (20.0)	211 (52.6)	86 (21.4)	1 (0.2)	2.91 (0.804)

- 앞으로의 소득 수준 예상은 평균 2.91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근로유형’은 자영업 집단이 2.69점으로 가장 낮았고, 무직집단이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용근로자(정규직) 집단이 3.06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에서는 100만원~200만원 집단이 2.15점으로 가장 낮았고, 300만원~400만원 집단이 3.07점으로 가장 높았음
- ‘자치구’로 보면 동구 2.59점, 중구 2.83점으로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평균 3점 이상인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남. 동구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 남성들이 앞으로의 소득에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25] 앞으로의 소득 수준 예상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나빠질 것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	변화 없을 것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만 40~49세	8(4.0)	36(17.9)	109(54.2)	48(23.9)	0	5.323 (.256)	2.98
	만 50~59세	15(7.5)	44(22.0)	102(51.0)	38(19.0)	1(0.5)		2.83
자차구	동 구	7(8.6)	29(35.8)	36(44.4)	8(9.9)	1(1.2)	38.303 (.001)	2.59
	중 구	3(3.8)	20(25.0)	45(56.3)	12(15.0)	0		2.83
	서 구	7(8.8)	9(11.3)	41(51.3)	23(28.8)	0		3.00
	유성구	2(2.5)	11(13.8)	46(57.5)	21(26.3)	0		3.08
	대덕구	4(5.0)	11(13.8)	43(53.8)	22(27.5)	0		3.04
학력	중졸 이하	0	2(33.3)	2(33.3)	2(33.3)	0	10.788 (.547)	3.00
	고졸	7(3.6)	33(16.9)	112(57.4)	42(21.5)	1(0.5)		2.98
	대졸	15(8.2)	39(21.4)	89(48.9)	39(21.4)	0		2.84
	대학원졸	1(5.6)	6(33.3)	8(44.4)	3(16.7)	0		2.72
근로 유형	자영업	7(12.7)	19(34.5)	13(23.6)	16(29.1)	0	127.513 (.000)	2.69
	프리랜서	3(11.1)	2(7.4)	15(55.6)	7(25.9)	0		2.96
	상용근로자(정규직)	6(2.9)	27(12.9)	124(59.3)	52(24.9)	0		3.06
	상용근로자(계약직)	3(4.3)	17(24.6)	44(63.8)	5(7.2)	0		2.74
	일용근로자/이르바이트	4(11.4)	15(42.9)	11(31.4)	5(14.3)	0		2.49
무직	0	0	4(66.7)	1(16.7)	1(16.7)	3.5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11.1)	0	6(66.7)	1(11.1)	1(11.1)	93.856 (.000)	3.11
	100만원~200만원	4(20.0)	11(55.0)	3(15.0)	2(10.0)	0		2.15
	200만원~300만원	7(6.1)	34(29.6)	59(51.3)	15(13.0)	0		2.71
	300만원~400만원	9(3.9)	29(12.7)	127(55.7)	63(27.6)	0		3.07
400만원 이상	2(6.9)	6(20.7)	16(55.2)	5(17.2)	0	2.83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3) 마음건강

(1)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

[표 2-26]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

(단위: 명, %, 점)

계	전혀 건강 하지 않음	별로 건강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평균 (표준편차)
401	8 (2.0)	42 (10.5)	170 (42.4)	159 (39.7)	22 (5.5)	3.36 (0.819)

- 현재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는 평균 3.36으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연령대’,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연령대’는 40대가 평균 3.47점으로 50대 평균 3.25점보다 높게 나타나 50대보다는 40대가 조금 더 자신의 마음건강상태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로유형’은 무직이 평균 2.17점으로 가장 낮았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상용근로자(계약직) 순이었음
- ‘소득수준’에서는 100만원 이하 집단이 평균 2.00으로 가장 낮았고, 300~400만원이 3.52로 가장 높았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마음건강이 양호한 경향을 보임

[표 2-27] 자신의 마음건강 상태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만 40~49세	6(3.0)	13(6.5)	82(40.8)	80(39.8)	20(10.0)	23.038 (.000)	3.47
	만 50~59세	2(1.0)	29(14.5)	88(44.0)	79(39.5)	2(1.0)		3.25
차차구	동 구	2(2.5)	14(17.3)	31(38.3)	25(30.9)	9(11.1)	30.962 (.014)	3.31
	중 구	1(1.3)	10(12.5)	42(52.5)	22(27.5)	5(6.3)		3.25
	서 구	4(5.0)	7(8.8)	33(41.3)	34(42.5)	2(2.5)		3.29
	유성구	0	5(6.3)	35(43.8)	36(45.0)	4(5.0)		3.49
	대덕구	1(1.3)	6(7.5)	29(36.3)	42(52.5)	2(2.5)		3.48
학력	중졸 이하	0	0	2(33.3)	4(66.7)	0	21.233 (.047)	3.67
	고졸	5(2.6)	28(14.4)	91(46.7)	65(33.3)	6(3.1)		3.20
	대졸	3(1.6)	12(6.6)	70(38.5)	84(46.2)	13(7.1)		3.51
	대학원졸	0	2(11.1)	7(38.9)	6(33.3)	3(16.7)		3.56
근로 유형	자영업	1(1.8)	6(10.9)	15(27.3)	28(50.9)	5(9.1)	77.782 (.000)	3.55
	프리랜서	0	3(11.1)	10(37.0)	13(48.1)	1(3.7)		3.44
	상용근로자(정규직)	3(1.4)	5(2.4)	100(47.8)	91(43.5)	10(4.8)		3.48
	상용근로자(계약직)	1(1.4)	14(20.3)	30(43.5)	20(29.0)	4(5.8)		3.17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2(5.7)	10(28.6)	15(42.9)	6(17.1)	2(5.7)		2.89
	무직	1(16.7)	4(66.7)	0	1(16.7)	0		2.17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3(33.3)	4(44.4)	1(11.1)	1(11.1)	0	116.993 (.000)	2.00
	100만원~200만원	2(10.0)	10(50.0)	5(25.0)	3(15.0)	0		2.45
	200만원~300만원	1(0.9)	13(11.3)	58(50.4)	36(31.3)	7(6.1)		3.30
	300만원~400만원	1(0.4)	13(5.7)	95(41.7)	105(46.1)	14(6.1)		3.52
	400만원 이상	1(3.4)	2(6.9)	11(37.9)	14(48.3)	1(3.4)		3.41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2)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표 2-28]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단위: 명, %, 점)

계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401	9 (2.2)	95 (23.7)	172 (42.9)	118 (29.4)	7 (1.7)	3.05 (0.831)

-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는 평균 3.05로 나타남. 우울감을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1%였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학력’은 대졸 집단이 2.85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졸 이하가 3.33점으로 가장 높았음.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는 우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유형’은 프리랜서가 평균 2.59점으로 가장 낮았고, 무직 집단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음
- ‘소득수준’은 400만원 이상이 2.72점으로 가장 낮았고, 100만원 이하가 3.78점으로 가장 높았음. 소득이 적을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2-29]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만 40~49세	8(4.0)	54(26.9)	83(41.3)	54(26.9)	2(1.0)	9.563 (.048)	2.94
	만 50~59세	1(0.5)	41(20.5)	89(44.5)	64(32.0)	5(2.5)		3.16
차차구	동 구	5(6.2)	25(30.9)	28(34.6)	22(27.2)	1(1.2)	21.626 (.156)	2.86
	중 구	2(2.5)	21(26.3)	41(51.3)	15(18.8)	1(1.3)		2.90
	서 구	0	17(21.3)	37(46.3)	25(31.3)	1(1.3)		3.13
	유성구	2(2.5)	14(17.5)	33(41.3)	29(36.3)	2(2.5)		3.19
	대덕구	0	18(22.5)	33(41.3)	27(33.8)	2(2.5)		3.16
학력	중졸 이하	0	1(16.7)	2(33.3)	3(50.0)	0	44.081 (.000)	3.33
	고졸	2(1.0)	27(13.8)	90(46.2)	75(38.5)	1(0.5)		3.24
	대졸	6(3.3)	61(33.5)	74(40.7)	37(20.3)	4(2.2)		2.85
	대학원졸	1(5.6)	6(33.3)	6(33.3)	3(16.7)	2(11.1)		2.94
근로 유형	자영업	3(5.5)	17(30.9)	15(27.3)	18(32.7)	2(3.6)	49.328 (.000)	2.98
	프리랜서	1(3.7)	13(48.1)	9(33.3)	4(14.8)	0		2.59
	상용근로자(정규직)	3(1.4)	43(20.6)	106(50.7)	55(26.3)	2(1.0)		3.05
	상용근로자(계약직)	2(2.9)	19(27.5)	30(43.5)	16(23.2)	2(2.9)		2.96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0	3(8.6)	11(31.4)	20(57.1)	1(2.9)		3.54
	무직	0	0	1(16.7)	5(83.3)	0		3.83
소득	100만원 이하	0	0	2(22.2)	7(77.8)	0	45.163 (.000)	3.78
	100만원~200만원	0	1(5.0)	4(20.0)	14(70.0)	1(5.0)		3.75
	200만원~300만원	2(1.7)	19(16.5)	55(47.8)	36(31.3)	3(2.6)		3.17
	300만원~400만원	5(2.2)	64(28.1)	101(44.3)	56(24.6)	2(0.9)		2.94
	400만원 이상	2(6.9)	11(37.9)	10(34.5)	5(17.2)	1(3.4)		2.72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3)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

-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은 주로 사회·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로움,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선택한 집단들도 있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소득수준'임
- '소득수준'에서 사회·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나온 집단은 200만원~300만원(29.6%), 300만원~400만원(25.9%)였고, 건강 문제는 100만원 이하 집단(44.4%), 경제적 어려움은 100만원~200만원(50.0%), 외로움은 400만원 이상(34.5%) 집단이었음
- 이 문항 응답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선택지 1~2개에 응답이 몰리는 경향보다는 다양한 선택지에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임. 이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이 응답자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이에 맞춘 다양한 지원책 또는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2-30]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 : 응답자 특성별

구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	사회 직장 생활의 어려움	성적욕구	가족 타인과의 갈등	미래의 불안감	범죄피해 두려움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31(15.4)	20(10.0)	51(25.4)	47(23.4)	2(1.0)	15(7.5)	28(13.9)	7(3.5)	14.712 (.040)
	만 50~59세	37(18.5)	34(17.0)	37(18.5)	52(26.0)	4(2.0)	7(3.5)	28(14.0)	1(0.5)	
자취구	동 구	12(14.8)	12(14.8)	23(28.4)	17(21.0)	2(2.5)	5(6.2)	10(12.3)	0	36.278 (.136)
	중 구	15(18.8)	8(10.0)	27(33.8)	13(16.3)	1(1.3)	2(2.5)	13(16.3)	1(1.3)	
	서 구	13(16.3)	12(15.0)	16(20.0)	22(27.5)	1(1.3)	3(3.8)	11(13.8)	2(2.5)	
	유성구	18(22.5)	7(8.8)	10(12.5)	21(26.3)	2(2.5)	5(6.3)	13(16.3)	4(5.0)	
	대덕구	10(12.5)	15(18.8)	12(15.0)	26(32.5)	0	7(8.8)	9(11.3)	1(1.3)	
학력	중졸 이하	1(16.7)	2(33.3)	2(33.3)	0	0	0	1(16.7)	0	41.893 (.004)
	고졸	45(23.1)	35(17.9)	43(22.1)	37(19.0)	5(2.6)	8(4.1)	21(10.8)	1(0.5)	
	대졸	19(10.4)	15(8.2)	41(22.5)	55(30.2)	1(0.5)	14(7.7)	30(16.5)	7(3.8)	
	대학원졸	3(16.7)	2(11.1)	2(11.1)	7(38.9)	0	0	4(22.2)	0	
근로 유형	자영업	6(10.9)	3(5.5)	16(29.1)	13(23.6)	1(1.8)	2(3.6)	13(23.6)	1(1.8)	56.263 (.013)
	프리랜서	2(7.4)	4(14.8)	3(11.1)	9(33.3)	0	1(3.7)	6(22.2)	2(7.4)	
	상용근로자(정규직)	41(19.6)	31(14.8)	50(23.9)	48(23.0)	2(1.0)	11(5.3)	24(11.5)	2(1.0)	
	상용근로자(계약직)	7(10.1)	10(14.5)	12(17.4)	20(29.0)	1(1.4)	7(10.1)	9(13.0)	3(4.3)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0(28.6)	3(8.6)	7(20.0)	9(25.7)	1(2.9)	1(2.9)	4(11.4)	0	
	무직	2(33.3)	3(50.0)	0	0	1(16.7)	0	0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3(33.3)	4(44.4)	1(11.1)	0	1(11.1)	0	0	0	61.841 (.000)
	100만원~200만원	10(50.0)	2(10.0)	5(25.0)	3(15.0)	0	0	0	0	
	200만원~300만원	12(10.4)	13(11.3)	21(18.3)	34(29.6)	2(1.7)	9(7.8)	19(16.5)	5(4.3)	
	300만원~400만원	41(18.0)	31(13.6)	51(22.4)	59(25.9)	2(0.9)	13(5.7)	29(12.7)	2(0.9)	
	400만원 이상	2(6.9)	4(13.8)	10(34.5)	3(10.3)	1(3.4)	0	8(27.6)	1(3.4)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4)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법

-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주로 지인과의 대화로 나타난 가운데 음주로 해소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한 집단들도 있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소득수준'임
- '소득수준'에서 우울감을 가장 많이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지인과의 대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만원~300만원, 300만원~400만원, 400만원 이상의 세 집단은 각각 42.6%, 36.4%, 27.6%로 지인과의 대화를 우울감 해소방법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음주를 각각 33.3%, 50.0%로 많이 응답하였음
- '소득수준'이 낮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집단일수록 음주로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2-31]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법 : 응답자 특성별

구분	가족과 대화	지인과 대화	전문가와 상담	참는다	잔다	취미활동	음주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33(16.4)	70(34.8)	5(2.5)	9(4.5)	23(11.4)	31(15.4)	5.063 (.536)
	만 50~59세	27(13.5)	73(36.5)	5(2.5)	10(5.0)	30(15.0)	19(9.5)	
자차구	동 구	11(13.6)	34(42.0)	3(3.7)	4(4.9)	9(11.1)	10(12.3)	35.451 (.062)
	중 구	14(17.5)	30(37.5)	3(3.8)	4(5.0)	14(17.5)	7(8.8)	
	서 구	14(17.5)	25(31.3)	4(5.0)	5(6.3)	11(13.8)	3(3.8)	
	유성구	11(13.8)	24(30.0)	0	5(6.3)	9(11.3)	19(23.8)	
	대덕구	10(12.5)	30(37.5)	0	1(1.3)	10(12.5)	11(13.8)	
학력	중졸 이하	1(16.7)	3(50.0)	0	0	0	2(33.3)	41.708 (.001)
	고졸	25(12.8)	67(34.4)	7(3.6)	9(4.6)	41(21.0)	12(6.2)	
	대졸	33(18.1)	65(35.7)	3(1.6)	9(4.9)	10(5.5)	33(18.1)	
	대학원졸	1(5.6)	8(44.4)	0	1(5.6)	2(11.1)	5(27.8)	
근로 유형	자영업	10(18.2)	20(36.4)	1(1.8)	2(3.6)	2(3.6)	11(20.0)	62.140 (.001)
	프리랜서	1(3.7)	13(48.1)	0	2(7.4)	0	7(25.9)	
	상용근로자(정규직)	39(18.7)	80(38.3)	6(2.9)	7(3.3)	32(15.3)	22(10.5)	
	상용근로자(계약직)	9(13.0)	18(26.1)	2(2.9)	7(10.1)	13(18.8)	6(8.7)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2.9)	11(31.4)	0	1(2.9)	5(14.3)	4(11.4)	
	무직	0	1(16.7)	1(16.7)	0	1(16.7)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0	1(11.1)	2(22.2)	1(11.1)	2(22.2)	0	75.952 (.000)
	100만원~200만원	1(5.0)	2(10.0)	1(5.0)	1(5.0)	4(20.0)	1(5.0)	
	200만원~300만원	7(6.1)	49(42.6)	1(0.9)	11(9.6)	9(7.8)	15(13.0)	
	300만원~400만원	47(20.6)	83(36.4)	4(1.8)	5(2.2)	34(14.9)	30(13.2)	
	400만원 이상	5(17.2)	8(27.6)	2(6.9)	1(3.4)	4(13.8)	4(13.8)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5)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1순위)

- 1인 가구 중장년 남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집단에서 1순위로 응답한 것은 마음건강 관련 자가검진이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근로유형’임
- ‘근로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상용근로자(정규직), 상용근로자(계약직), 무직 집단이었음. 세 집단 역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항목은 마음건강 자가검진(①)이었으나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②),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⑤), 1인 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홍보 지원(⑦), 체계적인 돌봄관리서비스 제공(⑨)과 같은 방안들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표 2-32]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76(37.8)	28(13.9)	23(11.4)	12(6.0)	7(3.5)	9(4.5)	15(7.5)	27(13.4)	2(1.0)	2(1.0)	8.494 (.485)
	만 50~59세	63(31.5)	29(14.5)	29(14.5)	15(7.5)	15(7.5)	10(5.0)	13(6.5)	18(9.0)	4(2.0)	4(2.0)	
자차구	동 구	30(37.0)	13(16.0)	11(13.6)	4(4.9)	3(3.7)	1(1.2)	7(8.6)	10(12.3)	2(2.5)	0	51.890 (.042)
	중 구	42(52.5)	9(11.3)	4(5.0)	4(5.0)	3(3.8)	1(1.3)	4(5.0)	13(16.3)	0	0	
	서 구	23(28.8)	12(15.0)	9(11.3)	7(8.8)	4(5.0)	8(10.0)	8(10.0)	7(8.8)	1(1.3)	1(1.3)	
	유성구	24(30.0)	10(12.5)	16(20.0)	4(5.0)	7(8.8)	3(3.8)	2(2.5)	10(12.5)	2(2.5)	2(2.5)	
	대덕구	20(25.0)	13(16.3)	12(15.0)	8(10.0)	5(6.3)	6(7.5)	7(8.8)	5(6.3)	1(1.3)	3(3.8)	
학력	중졸 이하	3(50.0)	1(16.7)	1(16.7)	0	1(16.7)	0	0	0	0	0	36.186 (.111)
	고졸	73(37.4)	30(15.4)	29(14.9)	17(8.7)	14(7.2)	10(5.1)	5(2.6)	14(7.2)	1(0.5)	2(1.0)	
	대졸	57(31.3)	24(13.2)	19(10.4)	9(4.9)	6(3.3)	8(4.4)	22(12.1)	29(15.9)	5(2.7)	3(1.6)	
	대학원졸	6(33.3)	2(11.1)	3(16.7)	1(5.6)	1(5.6)	1(5.6)	1(5.6)	2(11.1)	0	1(5.6)	
근로 유형	자영업	21(38.2)	3(5.5)	4(7.3)	3(5.5)	4(7.3)	1(1.8)	5(9.1)	10(18.2)	2(3.6)	2(3.6)	66.895 (.000)
	프리랜서	13(48.1)	3(11.1)	3(11.1)	1(3.7)	0	1(3.7)	1(3.7)	5(18.5)	0	0	
	상용근로자(정규직)	63(30.1)	34(16.3)	29(13.9)	18(8.6)	14(6.7)	15(7.2)	18(8.6)	15(7.2)	1(0.5)	2(1.0)	
	상용근로자(계약직)	24(34.8)	12(17.4)	14(20.3)	4(5.8)	1(1.4)	1(1.4)	3(4.3)	8(11.6)	0	2(2.9)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6(45.7)	4(11.4)	2(5.7)	1(2.9)	2(5.7)	1(2.9)	0	7(20.0)	2(5.7)	0	
	무직	2(33.3)	1(16.7)	0	0	1(16.7)	0	1(16.7)	0	1(16.7)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3(33.3)	1(11.1)	0	0	1(11.1)	0	1(11.1)	2(22.2)	1(11.1)	0	39.986 (.298)
	100만원~200만원	14(70.0)	2(10.0)	1(5.0)	1(5.0)	0	1(5.0)	0	1(5.0)	0	0	
	200만원~300만원	44(38.3)	10(8.7)	12(10.4)	6(5.2)	7(6.1)	4(3.5)	8(7.0)	19(16.5)	3(2.6)	2(1.7)	
	300만원~400만원	68(29.8)	39(17.1)	35(15.4)	17(7.5)	13(5.7)	13(5.7)	18(7.9)	19(8.3)	2(0.9)	4(1.8)	
	400만원 이상	10(34.5)	5(17.2)	4(13.8)	3(10.3)	1(3.4)	1(3.4)	1(3.4)	4(13.8)	0	0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항목별 질문은 아래와 같음

1. 마음건강(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관련 자가검진
2.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3.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4.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의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5.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6.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
7. 1인 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홍보 지원
8.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9. 체계적인 돌봄 관리서비스 제공
10. 전문의(민간기관) 상담비용 지원

(6)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2순위)

- 1인 가구 중장년 남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집단에서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15.7%의 오프라인을 통한 마음건강 정보제공(③)이었음
-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마음건강 관련 자가검진(①)은 15.5%로 0.2%p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온라인을 통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의 마음건강 상담서비스(④) 14.2%,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⑤) 13.5% 등 자가 검진 및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지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자치구'임. 특이하게도 전체 응답비율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③)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치구' 내 집단 중에서는 중구만 ③번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구는 온라인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②)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⑤)이 18.5%로 높게 나타났음.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마음건강관련 자가검진 항목(①)이 1순위 질문과 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2-33]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26(12.9)	26(12.9)	27(13.4)	30(14.9)	28(13.9)	13(6.5)	25(12.4)	8(4.0)	7(3.5)	11(5.5)	11.764 (.227)
	만 50~59세	36(18.0)	13(6.5)	36(18.0)	27(13.5)	26(13.0)	9(4.5)	18(9.0)	9(4.5)	14(7.0)	12(6.0)	
자차구	동 구	11(13.6)	15(18.5)	11(13.6)	5(6.2)	15(18.5)	2(2.5)	7(8.6)	3(3.7)	2(2.5)	10(12.3)	88.827 (.000)
	중 구	2(2.5)	15(18.8)	18(22.5)	11(13.8)	5(6.3)	4(5.0)	11(13.8)	8(10.0)	0	6(7.5)	
	서 구	17(21.3)	3(3.8)	12(15.0)	14(17.5)	10(12.5)	5(6.3)	8(10.0)	3(3.8)	8(10.0)	0	
	유성구	14(17.5)	4(5.0)	13(16.3)	12(15.0)	14(17.5)	4(5.0)	11(13.8)	2(2.5)	5(6.3)	1(1.3)	
	대덕구	18(22.5)	2(2.5)	9(11.3)	15(18.8)	10(12.5)	7(8.8)	6(7.5)	1(1.3)	6(7.5)	6(7.5)	
학력	중졸 이하	2(33.3)	0	1(16.7)	3(50.0)	0	0	0	0	0	0	45.274 (.015)
	고졸	40(20.5)	23(11.8)	32(16.4)	33(16.9)	24(12.3)	11(5.6)	15(7.7)	5(2.6)	8(4.1)	4(2.1)	
	대졸	19(10.4)	13(7.1)	27(14.8)	18(9.9)	28(15.4)	9(4.9)	26(14.3)	12(6.6)	12(6.6)	18(9.9)	
	대학원졸	1(5.6)	3(16.7)	3(16.7)	3(16.7)	2(11.1)	2(11.1)	2(11.1)	0	1(5.6)	1(5.6)	
근로 유형	자영업	6(10.9)	6(10.9)	7(12.7)	4(7.3)	7(12.7)	3(5.5)	8(14.5)	5(9.1)	3(5.5)	6(10.9)	56.971 (.109)
	프리랜서	3(11.1)	3(11.1)	4(14.8)	3(11.1)	7(25.9)	1(3.7)	3(11.1)	0	0	3(11.1)	
	상용근로자(정규직)	40(19.1)	13(6.2)	42(20.1)	32(15.3)	26(12.4)	16(7.7)	16(7.7)	8(3.8)	10(4.8)	6(2.9)	
	상용근로자(계약직)	10(14.5)	10(14.5)	7(10.1)	11(15.9)	9(13.0)	1(1.4)	11(15.9)	3(4.3)	4(5.8)	3(4.3)	
	일용근로자/이르바이트	2(5.7)	6(17.1)	3(8.6)	6(17.1)	3(8.6)	1(2.9)	5(14.3)	1(2.9)	3(8.6)	5(14.3)	
	무직	1(16.7)	1(16.7)	0	1(16.7)	2(33.3)	0	0	0	1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11.1)	1(11.1)	0	1(11.1)	3(33.3)	0	0	0	2(22.2)	1(11.1)	55.310 (.021)
	100만원~200만원	0	5(25.0)	3(15.0)	3(15.0)	3(15.0)	0	3(15.0)	2(10.0)	1(5.0)	0	
	200만원~300만원	11(9.6)	20(17.4)	14(12.2)	13(11.3)	13(11.3)	5(4.3)	17(14.8)	4(3.5)	7(6.1)	11(9.6)	
	300만원~400만원	4(20.2)	11(4.8)	42(18.4)	35(15.4)	30(13.2)	15(6.6)	21(9.2)	9(3.9)	10(4.4)	9(3.9)	
	400만원 이상	4(13.8)	2(6.9)	4(13.8)	5(17.2)	5(17.2)	2(6.9)	2(6.9)	2(6.9)	1(3.4)	2(6.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항목별 질문은 아래와 같음

1. 마음건강(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관련 자가검진
2.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3.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4.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의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5.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6.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
7. 1인 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홍보 지원
8.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9. 체계적인 돌봄 관리서비스 제공
10. 전문의(민간기관) 상담비용 지원

(7)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3순위)

- 1인 가구 중장년 남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집단에서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13.7%의 체계적인 돌봄 관리서비스 제공(⑨)이었음. 그 다음으로 1인 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홍보지원(⑦)이 13.5%,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⑤) 12.5% 순이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임. ⑨번 항목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집단은 대졸(17.6%) 집단이고, 중졸 이하는 오프라인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③) 33.3%,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⑤) 33.3%였음. 고졸 집단은 온라인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⑥)이 13.8%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졸 집단은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⑧)이 27.8%로 가장 높았음

[표 2-34]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3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24(11.9)	12(6.0)	11(5.5)	16(8.0)	22(10.9)	15(7.5)	26(12.9)	20(10.0)	35(17.4)	20(10.0)	10.748 (.293)
	만 50~59세	14(7.0)	11(5.5)	9(4.5)	22(11.0)	28(14.0)	21(10.5)	28(14.0)	27(13.5)	20(10.0)	20(10.0)	
자차구	동 구	6(7.4)	8(9.9)	2(2.5)	4(4.9)	10(12.3)	5(6.2)	15(18.5)	12(14.8)	10(12.3)	9(11.1)	31.700 (.673)
	중 구	10(12.5)	4(5.0)	4(5.0)	5(6.3)	12(15.0)	6(7.5)	13(16.3)	13(16.3)	8(10.0)	5(6.3)	
	서 구	8(10.0)	6(7.5)	5(6.3)	10(12.5)	9(11.3)	8(10.0)	6(7.5)	10(12.5)	13(16.3)	5(6.3)	
	유성구	5(6.3)	2(2.5)	5(6.3)	9(11.3)	11(13.8)	8(10.0)	8(10.0)	7(8.8)	14(17.5)	11(13.8)	
	대덕구	9(11.3)	3(3.8)	4(5.0)	10(12.5)	8(10.0)	9(11.3)	12(15.0)	5(6.3)	10(12.5)	10(12.5)	
학력	중졸 이하	0	0	2(33.3)	1(16.7)	2(33.3)	0	1(16.7)	0	0	0	60.505 (.000)
	고졸	25(12.8)	13(6.7)	12(6.2)	25(12.8)	22(11.3)	27(13.8)	23(11.8)	18(9.2)	21(10.8)	9(4.6)	
	대졸	11(6.0)	10(5.5)	6(3.3)	11(6.0)	24(13.2)	8(4.4)	27(14.8)	24(13.2)	32(17.6)	29(15.9)	
	대학원졸	2(11.1)	0	0	1(5.6)	2(11.1)	1(5.6)	3(16.7)	5(27.8)	2(11.1)	2(11.1)	
근로 유형	자영업	8(14.5)	1(1.8)	2(3.6)	3(5.5)	8(14.5)	1(1.8)	7(12.7)	10(18.2)	10(18.2)	5(9.1)	66.073 (.022)
	프리랜서	0	0	1(3.7)	0	5(18.5)	4(14.8)	5(18.5)	4(14.8)	4(14.8)	4(14.8)	
	상용근로자(정규직)	22(10.5)	14(6.7)	13(6.2)	29(13.9)	27(12.9)	24(11.5)	21(10.0)	15(7.2)	24(11.5)	20(9.6)	
	상용근로자(계약직)	7(10.1)	6(8.7)	3(4.3)	5(7.2)	6(8.7)	7(10.1)	10(14.5)	7(10.1)	11(15.9)	7(10.1)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2.9)	1(2.9)	1(2.9)	0	4(11.4)	0	10(28.6)	10(28.6)	4(11.4)	4(11.4)	
	무직	0	1(16.7)	0	1(16.7)	0	0	1(16.7)	1(16.7)	2(33.3)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11.1)	1(11.1)	0	1(11.1)	0	0	2(22.2)	1(11.1)	3(33.3)	0	59.042 (.009)
	100만원~200만원	1(5.0)	1(5.0)	1(5.0)	1(5.0)	0	0	8(40.0)	6(30.0)	0	2(10.0)	
	200만원~300만원	12(10.4)	4(3.5)	6(5.2)	7(6.1)	10(8.7)	7(6.1)	15(13.0)	20(17.4)	24(20.9)	10(8.7)	
	300만원~400만원	20(8.8)	16(7.0)	12(5.3)	27(11.8)	37(16.2)	26(11.4)	26(11.4)	16(7.0)	23(10.1)	25(11.0)	
	400만원 이상	4(13.8)	1(3.4)	1(3.4)	2(6.9)	3(10.3)	3(10.3)	3(10.3)	4(13.8)	5(17.2)	3(10.3)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항목별 질문은 아래와 같음

1. 마음건강(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관련 자가검진
2.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3.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4.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의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5.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6.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
7. 1인 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홍보 지원
8.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9. 체계적인 돌봄 관리서비스 제공
10. 전문의(민간기관) 상담비용 지원

[표 2-35]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 개선 방안 - 순위별 요약

(단위: 명, %)

	①	②	③
1순위	마음건강 관련 자가검진 (139, 34.7)	온라인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 (57, 14.2)	오프라인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 (52, 13.0)
2순위	오프라인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 (63, 15.7)	마음건강 관련 자가검진 (62, 15.5)	온라인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 (57, 14.2)
3순위	체계적인 돌봄 관리 서비스 제공 (55, 13.7)	1인 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홍보지원 (54, 13.5)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50, 12.5)

- 중장년 남성들은 자가검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체계적인 돌봄 관리서비스 제공의 순서로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응답결과로 미루어볼 때 중장년 남성들은 직접적인 외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고, 최소한의 교류만을 원하는 소극적인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4) 1인 가구의 삶

(1)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유무

[표 2-36]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유무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예	아니오	계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197(98.0)	4(2.0)	201	-
	만 50~59세	198(99.0)	2(1.0)	200	
자차구	동 구	80(98.8)	1(1.2)	81	2.379 (.666)
	중 구	78(97.5)	2(2.5)	80	
	서 구	78(97.5)	2(2.5)	80	
	유성구	80(100.0)	0	80	
	대덕구	79(98.8)	1(1.3)	80	
학력	중졸 이하	6(100.0)	0	6	-
	고졸	192(98.5)	3(1.5)	195	
	대졸	179(98.4)	3(1.6)	182	
	대학원졸	18(100.0)	0	18	
근로유형	자영업	55(100.0)	0	55	16.783 (.005)
	프리랜서	26(96.3)	1(3.7)	27	
	상용근로자(정규직)	207(99.0)	2(1.0)	209	
	상용근로자(계약직)	69(100.0)	0	69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33(94.3)	2(5.7)	35	
	무직	5(83.3)	1(16.7)	6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6(66.7)	3(33.3)	9	66.037 (.000)
	100만원~200만원	19(95.0)	1(5.0)	20	
	200만원~300만원	114(99.1)	1(0.9)	115	
	300만원~400만원	227(99.6)	1(0.4)	228	
	400만원 이상	29(100.0)	0	2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소득'임. 100만원 이하 집단은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2) 혼자 산 기간 (1년 ~ 30년)

[표 2-37] 혼자 산 기간 (1년~11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연령대	만 40~49세	7(3.5)	20(10.0)	33(16.4)	33(16.4)	21(10.4)	10(5.0)	9(4.5)	11(5.5)	5(2.5)	18(9.0)	5(2.5)
	만 50~59세	7(3.5)	30(15.0)	24(12.0)	18(9.0)	24(12.0)	10(5.0)	2(1.0)	8(4.0)	1(0.5)	14(7.0)	4(2.0)
자치구	동 구	3(3.7)	7(8.6)	14(17.3)	6(7.4)	10(12.3)	2(2.5)	3(3.7)	4(4.9)	2(2.5)	10(12.3)	1(1.2)
	중 구	1(1.3)	9(11.3)	12(15.0)	7(8.8)	5(6.3)	3(3.8)	2(2.5)	3(3.8)	2(2.5)	6(7.5)	3(3.8)
	서 구	3(3.8)	13(16.3)	12(15.0)	11(13.8)	12(15.0)	5(6.3)	1(1.3)	7(8.8)	0	4(5.0)	1(1.3)
	유성구	3(3.8)	13(16.3)	11(13.8)	9(11.3)	9(11.3)	5(6.3)	1(1.3)	3(3.8)	1(1.3)	7(8.8)	3(3.8)
	대덕구	4(5.0)	8(10.0)	8(10.0)	18(22.5)	9(11.3)	5(6.3)	4(5.0)	2(2.5)	1(1.3)	5(6.3)	1(1.3)
학력	중졸 이하	0	0	0	0	1(16.7)	3(50.0)	0	0	0	0	0
	고졸	4(2.1)	19(9.7)	27(13.8)	24(12.3)	24(12.3)	5(2.6)	4(2.1)	11(5.6)	1(0.5)	12(6.2)	4(2.1)
	대졸	9(4.9)	29(15.9)	28(15.4)	23(12.6)	19(10.4)	12(6.6)	7(3.8)	8(4.4)	5(2.7)	18(9.9)	3(1.6)
	대학원졸	1(5.6)	2(11.1)	2(11.1)	4(22.2)	1(5.6)	0	0	0	0	2(11.1)	2(11.1)
근로 유형	자영업	3(5.5)	7(12.7)	10(18.2)	8(14.5)	7(12.7)	5(9.1)	1(1.8)	1(1.8)	1(1.8)	4(7.3)	2(3.6)
	프리랜서	1(3.7)	3(11.1)	5(18.5)	3(11.1)	3(11.1)	1(3.7)	0	1(3.7)	0	4(14.8)	0
	상용근로자(정규직)	8(3.8)	26(12.4)	24(11.5)	33(15.8)	23(11.0)	11(5.3)	5(2.4)	12(5.7)	3(1.4)	14(6.7)	6(2.9)
	상용근로자(계약직)	2(2.9)	11(15.9)	15(21.7)	4(5.8)	7(10.1)	1(1.4)	3(4.3)	2(2.9)	1(1.4)	5(7.2)	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0	3(8.6)	2(5.7)	3(8.6)	5(14.3)	2(5.7)	1(2.9)	3(8.6)	1(2.9)	2(5.7)	1(2.9)
	무직	0	0	1(16.7)	0	0	0	1(16.7)	0	0	3(50.0)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0	0	1(11.1)	1(11.1)	0	0	1(11.1)	0	0	3(33.3)	1(11.1)
	100만원~200만원	0	1(5.0)	4(20.0)	1(5.0)	1(5.0)	1(5.0)	1(5.0)	1(5.0)	0	1(5.0)	0
	200만원~300만원	6(5.2)	19(16.5)	9(7.8)	7(6.1)	11(9.6)	8(7.0)	3(2.6)	6(5.2)	3(2.6)	12(10.4)	4(3.5)
	300만원~400만원	7(3.1)	28(12.3)	35(15.4)	36(15.8)	28(12.3)	10(4.4)	6(2.6)	10(4.4)	3(1.3)	16(7.0)	4(1.8)
400만원 이상	1(3.4)	2(6.9)	8(27.6)	6(20.7)	5(17.2)	1(3.4)	0	2(6.9)	0	0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구분의 단위는 년.

[표 2-38] 혼자 산 기간 (12년~30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2	13	14	15	16	17	18	20	22	23	25	30
연령대	만 40~49세	5(2.5)	8(4.0)	2(1.0)	5(2.5)	2(1.0)	1(0.5)	2(1.0)	4(2.0)	0	0	0	0
	만 50~59세	5(2.5)	7(3.5)	2(1.0)	15(7.5)	1(0.5)	3(1.5)	6(3.0)	8(4.0)	1(0.5)	3(1.5)	4(2.0)	3(1.5)
자치구	동 구	3(3.7)	6(7.4)	0	1(1.2)	1(1.2)	1(1.2)	2(2.5)	2(2.5)	0	1(1.2)	1(1.2)	1(1.2)
	중 구	2(2.5)	3(3.8)	1(1.3)	8(10.0)	1(1.3)	3(3.8)	3(3.8)	5(6.3)	0	0	1(1.3)	0
	서 구	3(3.8)	0	1(1.3)	4(5.0)	0	0	1(1.3)	1(1.3)	0	1(1.3)	0	0
	유성구	1(1.3)	4(5.0)	2(2.5)	5(6.3)	1(1.3)	0	0	1(1.3)	1(1.3)	0	0	0
	대덕구	1(1.3)	2(2.5)	0	2(2.5)	0	0	2(2.5)	3(3.8)	0	1(1.3)	2(2.5)	2(2.5)
학력	중졸 이하	0	0	0	0	0	0	0	1(16.7)	0	1(16.7)	0	0
	고졸	6(3.1)	9(4.6)	4(2.1)	16(8.2)	1(0.5)	1(0.5)	7(3.6)	8(4.1)	0	1(0.5)	4(2.1)	3(1.5)
	대졸	4(2.2)	0	4(2.2)	1(0.5)	1(0.5)	3(1.6)	1(0.5)	3(1.6)	0	1	0	0
	대학원졸	0	2(11.1)	0	0	1(5.6)	0	0	0	1(5.6)	0	0	0
근로 유형	자영업	1(1.8)	1(1.8)	0	1(1.8)	0	2(3.6)	0	1(1.8)	0	0	0	0
	프리랜서	0	1(3.7)	0	1(3.7)	1(3.7)	0	0	2(7.4)	1(3.7)	0	0	0
	상용근로자(정규직)	7(3.3)	9(4.3)	3(1.4)	13(6.2)	2(1.0)	0	3(1.4)	4(1.9)	0	2(1.0)	0	1(0.5)
	상용근로자(계약직)	2(2.9)	2(2.9)	1(1.4)	3(4.3)	0	1(1.4)	3(4.3)	3(4.3)	0	0	2(2.9)	1(1.4)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0	2(5.7)	0	2(5.7)	0	1(2.9)	2(5.7)	1(2.9)	0	1(2.9)	2(5.7)	1(2.9)
	무직	0	0	0	0	0	0	0	1(16.7)	0	0	0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0	1(11.1)	0	0	0	0	0	1(11.1)	0	0	0	0
	100만원~200만원	0	2(10.0)	0	1(5.0)	0	0	0	1(5.0)	1(5.0)	1(5.0)	2(10.0)	1(5.0)
	200만원~300만원	7(6.1)	1(0.9)	1(0.9)	2(1.7)	1(0.9)	2(1.7)	5(4.3)	5(4.3)	0	0	2(1.7)	1(0.9)
	300만원~400만원	3(1.3)	9(3.9)	3(1.3)	16(7.0)	1(0.4)	2(0.9)	3(1.3)	5(2.2)	0	2(0.9)	0	1(0.4)
400만원 이상	0	2(6.9)	0	1(3.4)	1(3.4)	0	0	0	0	0	0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구분의 단위는 년

- 응답자들의 혼자 산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
- 혼자 산 지 3년인 응답자의 비율이 14.2%로 가장 많았고, 4년 12.7%, 2년 12.5% 순이었음. 20년 이상 혼자 산 응답자는 23명으로 전체 인원의 5.7%임. 응답자들의 전체 평균은 7.45년임

(3) 혼자 생활하는 이유

[표 2-39]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	2	3	4	5	6	7	8	9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91(45.3)	37(18.4)	12(6.0)	4(2.0)	7(3.5)	20(10.0)	12(6.0)	3(1.5)	15(7.5)	16.541 (.035)
	만 50~59세	89(44.5)	39(19.5)	13(6.5)	2(1.0)	12(6.0)	33(16.5)	7(3.5)	3(1.5)	2(1.0)	
자치구	동 구	28(34.6)	23(28.4)	4(4.9)	2(2.5)	6(7.4)	10(12.3)	5(6.2)	0	3(3.7)	38.150 (.210)
	중 구	32(40.0)	21(26.3)	5(6.3)	1(1.3)	7(8.8)	9(11.3)	2(2.5)	0	3(3.8)	
	서 구	39(48.8)	12(15.0)	5(6.3)	2(2.5)	3(3.8)	11(13.8)	3(3.8)	3(3.8)	2(2.5)	
	유영구	40(50.0)	12(15.0)	6(7.5)	1(1.3)	1(1.3)	11(13.8)	2(2.5)	1(1.3)	6(7.5)	
	대덕구	41(51.3)	8(10.0)	5(6.3)	0	2(2.5)	12(15.0)	7(8.8)	2(2.5)	3(3.8)	
학력	중졸 이하	1(16.7)	2(33.3)	0	0	2(33.3)	1(16.7)	0	0	0	54.446 (.000)
	고졸	101(51.8)	28(14.4)	8(4.1)	1(0.5)	14(7.2)	26(13.3)	13(6.7)	0	4(2.1)	
	대졸	74(40.7)	42(23.1)	14(7.7)	5(2.7)	3(1.6)	22(12.1)	6(3.3)	5(2.7)	11(6.0)	
	대학원졸	4(22.2)	4(22.2)	3(16.7)	0	0	4(22.2)	0	1(5.6)	2(11.1)	
근로 유형	자영업	18(32.7)	13(23.6)	5(9.1)	2(3.6)	2(3.6)	8(14.5)	2(3.6)	2(3.6)	3(5.5)	137.009 (.000)
	프리랜서	6(22.2)	5(18.5)	3(11.1)	2(7.4)	2(7.4)	4(14.8)	1(3.7)	3(11.1)	1(3.7)	
	상용근로자(정규직)	121(57.9)	32(15.3)	10(4.8)	2(1.0)	3(1.4)	29(13.9)	5(2.4)	1(0.5)	6(2.9)	
	상용근로자(계약직)	35(50.7)	13(18.8)	4(5.8)	0	2(2.9)	4(5.8)	6(8.7)	0	5(7.2)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0	12(34.3)	3(8.6)	0	8(22.9)	7(20.0)	3(8.6)	0	2(5.7)	
	무직	0	1(16.7)	0	0	2(33.3)	1(16.7)	2(33.3)	0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0	1(11.1)	0	0	5(55.6)	1(11.1)	2(22.2)	0	0	217.718 (.000)
	100만원~200만원	2(10.0)	3(15.0)	2(10.0)	0	8(40.0)	3(15.0)	2(10.0)	0	0	
	200만원~300만원	31(27.0)	40(34.8)	6(5.2)	1(0.9)	2(1.7)	14(12.2)	12(10.4)	0	9(7.8)	
	300만원~400만원	135(59.2)	30(13.2)	15(6.6)	3(1.3)	4(1.8)	27(11.8)	3(1.3)	3(1.3)	8(3.5)	
	400만원 이상	12(44.9)	7(19.0)	25(6.2)	6(1.5)	19(4.7)	53(13.2)	19(4.7)	6(1.5)	17(4.2)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항목별 질문은 아래와 같음

1. 본인 직장과의 거리
2. 배우자와의 이혼
3. 배우자와의 별거
4. 배우자와의 사별
5.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6.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분리 (기러기, 자녀독립 등)
7. 가족과의 불화
8. 학교, 교육훈련기관과의 거리
9. 기타 : 비혼주의

-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본인 직장과의 거리 때문이라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배우자와의 이혼,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분리(기러기, 자녀독립 등), 가족과의 불화 등의 응답도 집단 내에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 ‘근로유형’, ‘소득수준’ 임
- ‘학력’에서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졸, 대졸 집단은 본인 직장과의 거리를 각각 51.8%, 40.7%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대학원졸은 본인 직장과의 거리(22.2%), 배우자와의 이혼(22.2%),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분리(22.2%)로 응답하였으며 중졸 이하는 배우자와의 이혼(33.3%),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33.3%)로 응답하였음
- ‘근로유형’에서는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가 배우자와의 이혼(34.3%)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무직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33.3%), 가족과의 불화(33.3%)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다른 4개 집단은 모두 본인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함
- ‘소득수준’에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집단은 100만원 이하(55.6%)와 100만원~200만원(40.0%)였으며, 200만원~300만원 집단은 배우자와의 이혼(34.8%)이 300만원~400만원 (59.2%) 집단과 400만원 이상(44.9%) 집단은 본인 직장과의 거리를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음

(4) 혼자 사는 현재의 만족도

[표 2-40] 혼자 사는 현재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401	24 (6.0)	89 (22.2)	187 (46.6)	96 (23.9)	5 (1.2)	2.92 (0.864)

- 혼자 사는 현재의 만족도는 평균 2.92점으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학력’은 중졸 이하 집단이 3.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졸이 2.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근로유형’은 무직 집단이 1.83점으로 가장 낮았고, 상용근로자(정규직) 집단이 3.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은 300만원~400만원 집단이 3.0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100만원 이하 집단은 1.78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2-41] 혼자 사는 현재의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만 40~49세	12(6.0)	41(20.4)	90(44.8)	55(27.4)	3(1.5)	3.052 (.549)	2.98
	만 50~59세	12(6.0)	48(24.0)	97(48.5)	41(20.5)	2(1.0)		2.87
자차구	동 구	6(7.4)	23(28.4)	35(43.2)	16(19.8)	1(1.2)	26.666 (.045)	2.79
	중 구	6(7.5)	22(27.5)	42(52.5)	9(11.3)	1(1.3)		2.71
	서 구	7(8.8)	17(21.3)	32(40.0)	24(30.0)	0		2.91
	유성구	2(2.5)	12(15.0)	42(52.5)	21(26.3)	3(3.8)		3.14
	대덕구	3(3.8)	15(18.8)	36(45.0)	26(32.5)	0		3.06
학력	중졸 이하	0	3(50.0)	0	2(33.3)	1(16.7)	37.697 (.000)	3.17
	고졸	12(6.2)	29(14.9)	101(51.8)	53(27.2)	0		3.00
	대졸	10(5.5)	49(26.9)	82(45.1)	37(20.3)	4(2.2)		2.87
	대학원졸	2(11.1)	8(44.4)	4(22.2)	4(22.2)	0		2.56
근로 유형	자영업	7(12.7)	7(12.7)	24(43.6)	16(29.1)	1(1.8)	73.579 (.000)	2.95
	프리랜서	1(3.7)	9(33.3)	11(40.7)	6(22.2)	0		2.81
	상용근로자(정규직)	6(2.9)	42(20.1)	99(47.4)	59(28.2)	3(1.4)		3.05
	상용근로자(계약직)	5(7.2)	15(21.7)	40(58.0)	9(13.0)	0		2.77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2.9)	16(45.7)	12(34.3)	5(14.3)	1(2.9)		2.69
	무직	4(66.7)	0	1(16.7)	1(16.7)	0		1.83
소득	100만원 이하	6(66.7)	0	2(22.2)	1(11.1)	0	89.663 (.000)	1.78
	100만원~200만원	2(10.0)	11(55.0)	4(20.0)	3(15.0)	0		2.40
	200만원~300만원	10(8.7)	23(20.0)	54(47.0)	25(21.7)	3(2.6)		2.90
	300만원~400만원	6(2.6)	50(21.9)	107(46.9)	63(27.6)	2(0.9)		3.02
	400만원 이상	0	5(17.2)	20(69.0)	4(13.8)	0		2.97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5)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1순위)

[표 2-42]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식사	외로움	아프거나 위급할 때	주변의 시선	성(性)적인 문제	불안한 노후계획	범죄피해의 두려움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40(19.9)	65(32.3)	71(35.3)	9(4.5)	4(2.0)	10(5.0)	2(1.0)	10.199 (.117)
	만 50~59세	60(30.0)	60(30.0)	63(31.5)	5(2.5)	0	11(5.5)	1(0.5)	
자차구	동 구	19(23.5)	31(38.5)	24(29.6)	3(3.7)	0	3(3.7)	1(1.2)	37.939 (.035)
	중 구	21(26.3)	34(42.5)	21(26.3)	3(3.8)	0	1(1.3)	0	
	서 구	18(22.5)	26(32.5)	23(28.8)	3(3.8)	2(2.5)	8(10.0)	0	
	유성구	28(35.0)	12(15.0)	31(38.8)	2(2.5)	8(10.0)	0		
	대덕구	14(17.5)	22(27.5)	35(43.8)	3(3.8)	1(1.3)	5(6.3)	0	
학력	중졸 이하	1(16.7)	4(66.7)	1(16.7)	0	0	0	0	26.387 (.091)
	고졸	60(30.8)	61(31.3)	48(24.6)	8(4.1)	2(1.0)	13(6.7)	3(1.5)	
	대졸	37(20.3)	54(29.7)	77(42.3)	6(3.3)	2(1.1)	6(3.3)	0	
	대학원졸	2(11.1)	6(33.3)	8(44.4)	0	0	2(11.1)	0	
근로 유형	지영업	5(9.1)	20(36.4)	20(36.4)	2(3.6)	0	5(9.1)	3(5.5)	48.320 (.018)
	프리랜서	11(40.7)	7(25.9)	6(22.2)	1(3.7)	0	2(7.4)	0	
	상용근로자(정규직)	59(28.2)	65(31.1)	65(31.1)	9(4.3)	2(1.0)	9(4.3)	0	
	상용근로자(계약직)	15(21.7)	18(26.1)	31(44.9)	0	2(2.9)	3(4.3)	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8(22.9)	11(31.4)	12(34.3)	2(5.7)	0	2(5.7)	0	
	무직	2(33.3)	4(66.7)	0	0	0	0	0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2(22.2)	4(44.4)	2(22.2)	0	0	1(11.1)	0	60.864 (.000)
	100만원~200만원	2(10.0)	12(60.0)	3(15.0)	0	1(5.0)	2(10.0)	0	
	200만원~300만원	19(16.5)	39(33.9)	46(40.0)	5(4.3)	1(0.9)	5(4.3)	0	
	300만원~400만원	75(32.9)	53(23.2)	76(33.3)	9(3.9)	2(0.9)	12(5.3)	1(0.4)	
	400만원 이상	2(6.9)	17(58.6)	7(24.1)	0	0	1(3.4)	2(6.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에 대한 질문에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134명, 33.4%)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로움(125명, 31.2%)은 두 번째였음. 세 번째는 식사(100명, 24.9%)인 것으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소득수준’임
-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외로움에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한 100만원 이하(44.4%), 100만원~200만원(60.0%), 400만원 이상(58.6%)의 세 집단과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에 높은 비율을 보인 200만원~300만원(40.0%), 300만원~400만원(33.3%) 집단으로 나뉘었음

(6)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2순위)

[표 2-43]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식사	외로움	아프거나 위급할 때	주변의 시선	성(性)적인 문제	불안한 노후계획	범죄피해의 두려움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32(15.9)	42(20.9)	46(22.9)	32(15.9)	7(3.5)	25(12.4)	17(8.5)	18.775 (.005)
	만 50~59세	39(19.5)	42(21.0)	61(30.5)	14(7.0)	9(4.5)	31(15.5)	4(2.0)	
자차구	동 구	20(24.7)	13(16.0)	20(24.7)	10(12.3)	4(4.9)	10(12.3)	4(4.9)	39.200 (.026)
	중 구	17(21.3)	14(17.5)	28(35.0)	4(5.0)	5(6.3)	9(11.3)	3(3.8)	
	서 구	12(15.0)	10(12.5)	27(33.8)	12(15.0)	1(1.3)	16(20.0)	2(2.5)	
	유성구	10(12.5)	23(28.8)	18(22.5)	6(7.5)	3(3.8)	14(17.5)	6(7.5)	
	대덕구	12(15.0)	24(30.0)	14(17.5)	14(17.5)	3(3.8)	7(8.8)	6(7.5)	
학력	중졸 이하	2(33.3)	1(16.7)	3(50.0)	0	0	0	0	21.327 (.263)
	고졸	35(17.9)	40(20.5)	59(30.3)	23(11.8)	9(4.6)	25(12.8)	4(2.1)	
	대졸	30(16.5)	38(20.9)	39(21.4)	22(12.1)	6(3.3)	31(17.0)	16(8.8)	
	대학원졸	4(22.2)	5(27.8)	6(33.3)	1(5.6)	1(5.6)	0	1(5.6)	
근로 유형	지영업	8(14.5)	8(14.5)	14(25.5)	8(14.5)	1(1.8)	13(23.6)	3(5.5)	55.479 (.003)
	프리랜서	4(14.8)	3(11.1)	9(33.3)	3(11.1)	2(7.4)	5(18.5)	1(3.7)	
	상용근로자(정규직)	35(16.7)	50(23.9)	63(30.1)	27(12.9)	4(1.9)	21(10.0)	9(4.3)	
	상용근로자(계약직)	16(23.2)	20(29.0)	10(14.5)	5(7.2)	5(7.2)	7(10.1)	6(8.7)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8(22.9)	3(8.6)	6(17.1)	2(5.7)	4(11.4)	10(28.6)	2(5.7)	
	무직	0	0	5(83.3)	1(16.7)	0	0	0	
소득	100만원 이하	0	0	6(66.7)	2(22.2)	0	1(11.1)	0	40.329 (.020)
	100만원~200만원	7(35.0)	2(10.0)	4(20.0)	1(5.0)	2(10.0)	4(20.0)	0	
	200만원~300만원	18(15.7)	23(20.0)	21(18.3)	15(13.0)	9(7.8)	21(18.3)	8(7.0)	
	300만원~400만원	40(17.5)	56(24.6)	65(28.5)	24(10.5)	4(1.8)	26(11.4)	13(5.7)	
	400만원 이상	6(20.7)	3(10.3)	11(37.9)	4(13.8)	1(3.4)	4(13.8)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2순위는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107명, 26.7%)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로움(84명, 20.9%)은 두 번째였음. 세 번째는 식사(71명, 17.7%)로 나타남○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별 집단은 보이지 않았음
- 다만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집단은 불안한 노후계획(28.6%)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식사(35.0%)를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 정도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와 외로움, 식사를 가장 힘든 일로 생각하고 있음

[표 2-44]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 순위별 요약

(단위: 명, %)

	①	②	③
1순위 (응답빈도, 비율)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134, 33.4)	외로움 (125, 31.2)	식사 (100, 24.9)
2순위 (응답빈도, 비율)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107, 26.7)	외로움 (84, 20.9)	식사 (71, 17.7)

(7) 향후 전반적인 생활 수준 예상

[표 2-45] 향후 전반적인 생활 수준 예상

(단위: 명, %, 점)

계	매우 나빠질 것	조금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조금 좋아질 것	매우 좋아질 것	평균 (표준편차)
401	16 (4.0)	88 (21.9)	202 (50.4)	94 (23.4)	1 (0.2)	2.94 (0.788)

- 향후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예상은 평균 2.94점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 ‘근로유형’, ‘소득수준’임
- ‘학력’은 중졸 이하 집단이 3.67점으로 집단 중에서는 앞으로의 생활수준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졸 집단이 2.72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유형’은 자영업 집단이 2.67점으로 가장 낮았고, 상용근로자(정규직) 집단이 3.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은 300만원~400만원 집단이 3.1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2.55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2-46] 향후 전반적인 생활 수준 예상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나빠질 것	조금 나빠질 것	변화 없음	조금 좋아질 것	매우 좋아질 것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만 40~49세	6(3.0)	39(19.4)	108(53.7)	47(23.4)	1(0.5)	4.104 (.392)	2.99
	만 50~59세	10(5.0)	49(24.5)	94(47.0)	47(23.5)	0		2.89
자차구	동 구	4(4.9)	27(33.3)	33(40.7)	17(21.0)	0	19.058 (.266)	2.78
	중 구	4(5.0)	20(25.0)	43(53.8)	13(16.3)	0		2.81
	서 구	3(3.8)	16(20.0)	38(47.5)	23(28.8)	0		3.01
	유성구	2(2.5)	12(15.0)	44(55.0)	22(27.5)	0		3.08
	대덕구	3(3.8)	13(16.3)	44(55.0)	19(23.8)	1(1.3)		3.03
학력	중졸 이하	0	0	2(33.3)	4(66.7)	0	51.817 (.000)	3.67
	고졸	5(2.6)	26(13.3)	115(59.0)	49(25.1)	0		3.07
	대졸	10(5.5)	55(30.2)	78(42.9)	39(21.4)	0		2.80
	대학원졸	1(5.6)	7(38.9)	7(38.9)	2(11.1)	1(5.6)		2.72
근로 유형	자영업	5(9.1)	21(38.2)	16(29.1)	13(23.6)	0	53.179 (.000)	2.67
	프리랜서	2(7.4)	4(14.8)	12(44.4)	9(33.3)	0		3.04
	상용근로자(정규직)	4(1.9)	27(12.9)	119(56.9)	58(27.8)	1(0.5)		3.12
	상용근로자(계약직)	2(2.9)	25(36.2)	34(49.3)	8(11.6)	0		2.7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3(8.6)	11(31.4)	15(42.9)	6(17.1)	0		2.69
	무직	0	0	6(100.0)	0	0		3.00
소득	100만원 이하	1(11.1)	0	8(88.9)	0	0	48.014 (.000)	2.78
	100만원~200만원	3(15.0)	5(25.0)	10(50.0)	2(10.0)	0		2.55
	200만원~300만원	8(7.0)	36(31.3)	51(44.3)	19(16.5)	1(0.9)		2.73
	300만원~400만원	1(0.4)	40(17.5)	117(51.3)	70(30.7)	0		3.12
	400만원 이상	3(10.3)	7(24.1)	16(55.2)	3(10.3)	0		2.66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8)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

-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①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③건강증진(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등)이 18.2%, ②가사활동 지원(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이 16.5% 순으로 나타났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학력’임
- ‘학력’에서 ①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을 가장 많이 응답한 집단은 중졸 이하(50.0%), 고졸(41.5%), 대졸(34.1%)였고, 대학원졸은 ③건강증진(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등)이 38.9%로 차이를 보였음
- 유의확률의 기준을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나 ‘근로유형’ 특성에서도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음. 자영업 집단이 29.1%로 ③건강증진(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등)을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프리랜서(40.7%), 상용근로자(정규직)(38.8%), 상용근로자(계약직)(31.9%),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65.7%), 무직 집단(66.7%)은 ①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2-47]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76(37.8)	26(12.9)	34(16.9)	6(3.0)	7(3.5)	32(15.9)	5(2.5)	9(4.5)	1(0.5)	0	3(1.5)	0	1(0.5)	1(0.5)	15.325 (.224)
	만 50~59세	76(38.0)	40(20.0)	39(19.5)	5(2.5)	4(2.0)	22(11.0)	5(2.5)	2(1.0)	4(2.0)	1(0.5)	1(0.5)	0	1(0.5)	0	
자치구	동 구	32(39.5)	12(14.8)	14(17.3)	2(2.5)	1(1.2)	13(16.0)	2(2.5)	2(2.5)	1(1.2)	0	1(1.2)	0	1(1.2)	0	54.956 (.228)
	중 구	32(40.0)	14(17.5)	10(12.5)	1(1.3)	1(1.3)	19(23.8)	0	1(1.3)	0	0	1(1.3)	0	1(1.3)	0	
	서 구	33(41.3)	16(20.0)	13(16.3)	1(1.3)	1(1.3)	9(11.3)	4(5.0)	2(2.5)	1(1.3)	0	0	0	0	0	
	유성구	27(33.8)	16(20.0)	21(26.3)	2(2.5)	4(5.0)	5(6.3)	2(2.5)	1(1.3)	2(2.5)	0	0	0	0	0	
	대덕구	28(35.0)	8(10.0)	15(18.8)	5(6.3)	4(5.0)	8(10.0)	2(2.5)	5(6.3)	1(1.3)	1(1.3)	2(2.5)	0	0	1(1.3)	
학력	중졸 이하	3(5.0)	1(16.7)	1(16.7)	0	0	0	0	0	1(16.7)	0	0	0	0	0	74.762 (.000)
	고졸	81(41.5)	41(21.0)	24(12.3)	10(5.1)	6(3.1)	19(9.7)	6(3.1)	5(2.6)	2(1.0)	0	0	0	0	0	
	대졸	62(34.1)	23(12.6)	41(22.5)	1(0.5)	4(2.2)	33(18.1)	4(2.2)	6(3.3)	2(1.1)	0	4(2.2)	0	2(1.1)	0	
	대학원졸	6(33.1)	1(5.6)	7(38.9)	0	1(5.6)	2(11.1)	0	0	0	0	0	0	0	1(5.6)	
근로 유형	자영업	11(20.0)	4(7.3)	16(29.1)	1(1.8)	1(1.8)	13(23.6)	2(3.6)	3(5.5)	3(5.5)	0	1(1.8)	0	0	0	102.655 (.001)
	프리랜서	11(40.7)	5(18.5)	2(7.4)	1(3.7)	0	4(14.8)	0	1(3.7)	0	0	0	0	2(7.4)	1(3.7)	
	상용근로자(정규직)	81(38.8)	42(20.1)	39(18.7)	6(2.9)	4(1.9)	20(9.6)	6(2.9)	6(2.9)	2(1.0)	1(0.5)	2(1.0)	0	0	0	
	상용근로자(계약직)	22(31.9)	12(17.4)	14(20.3)	2(2.9)	5(7.2)	11(15.9)	1(1.4)	1(1.4)	0	0	1(1.4)	0	0	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23(65.7)	2(5.7)	2(5.7)	1(2.9)	1(2.9)	5(14.3)	1(2.9)	0	0	0	0	0	0	0	
	무직	4(66.7)	1(16.7)	0	0	0	1(16.7)	0	0	0	0	0	0	0	0	
소득	100만원 이하	6(66.7)	1(11.1)	1(11.1)	0	0	1(11.1)	0	0	0	0	0	0	0	0	62.187 (.082)
	100만원~200만원	11(55.0)	3(15.0)	3(15.0)	0	0	0	0	2(10.0)	1(5.0)	0	0	0	0	0	
	200만원~300만원	49(42.6)	6(5.2)	24(20.9)	5(4.3)	3(2.6)	22(19.1)	3(2.6)	0	0	1(0.9)	0	0	2(1.7)	0	
	300만원~400만원	80(35.1)	50(21.9)	37(16.2)	6(2.6)	8(3.5)	25(11.0)	6(2.6)	9(3.9)	3(1.3)	0	3(1.3)	0	0	1(0.4)	
	400만원 이상	6(20.7)	6(20.7)	8(27.6)	0	0	6(20.7)	1(3.4)	0	1(3.4)	0	1(3.4)	0	0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항목별 질문은 아래와 같음

1. 주택안정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2. 가사활동 지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3. 건강증진 (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등)
4. 주거환경 개선 (수리, 낙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 등)
5. 안전한 환경조성 (귀갓길 안전, 강력범죄 예방 등)
6. 경제·일자리 지원 (구인구직정보, 능력 개발 등)
7. 인식개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8. 사회적 관계망 형성 (다양한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동 지원)
9. 정서적 안정 지원 (전문 상담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10. 1인 가구 전담 조직 또는 기관 설립
11. 여가·문화활동 지원 (취미,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12. 커뮤니티 공간 제공 (공유 주방, 스터디룸, 창작 공간 등)
13. 사회적 공동체 지원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체 조성)
14. 장애지원 (유서 및 위임장 작성, 상담지원 등)

(9)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2순위)

-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은 ③건강 증진(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등)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①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13.7% ②가사활동 지원(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이 13.7% 같은 비율로 두 번째 인 것으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없음
- 다만 대학원졸 집단은 ②가사활동 지원(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을 선택한 비율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 집단은 ①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참고할 만한 부분임

[표 2-48]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2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카이 제곱
연령대	만 40~49세	25(12.4)	31(15.4)	60(29.9)	30(14.9)	15(7.5)	11(5.5)	5(2.5)	12(6.0)	1(0.5)	3(1.5)	4(2.0)	1(0.5)	3(1.5)	0	9.594 (.652)
	만 50~59세	30(15.0)	24(12.0)	65(32.5)	21(10.5)	14(7.0)	17(8.5)	9(4.5)	8(4.0)	4(2.0)	2(1.0)	4(2.0)	0	2(1.0)	0	
자치구	동 구	8(9.9)	14(17.3)	25(30.9)	10(12.3)	4(4.9)	7(8.6)	2(2.5)	2(2.5)	1(1.2)	2(2.5)	3(3.7)	1(1.2)	2(2.5)	0	62.338 (.080)
	중 구	8(10.0)	14(17.5)	30(37.5)	9(11.3)	6(7.5)	3(3.8)	0	6(7.5)	1(1.3)	0	1(1.3)	0	2(2.5)	0	
	서 구	18(22.5)	10(12.5)	23(28.8)	16(20.0)	0	6(7.5)	1(1.3)	3(3.8)	0	1(1.3)	1(1.3)	0	1(1.3)	0	
	유성구	10(12.5)	9(11.3)	25(31.3)	8(10.0)	10(12.5)	6(7.5)	7(8.8)	2(2.5)	0	1(1.3)	2(2.5)	0	0	0	
	대덕구	11(13.8)	8(10.0)	22(27.5)	8(10.0)	9(11.3)	6(7.5)	4(5.0)	7(8.8)	3(3.8)	1(1.3)	1(1.3)	0	0	0	
학력	중졸 이하	1(16.7)	0	4(66.7)	0	1(16.7)	0	0	0	0	0	0	0	0	0	42.725 (.205)
	고졸	29(14.9)	22(11.3)	58(29.7)	32(16.4)	17(8.7)	15(7.7)	5(2.6)	8(4.1)	4(2.1)	3(1.5)	1(0.5)	0	1(0.5)	0	
	대졸	24(13.2)	28(15.4)	61(33.5)	18(9.9)	9(4.9)	11(6.0)	8(4.4)	9(4.9)	0	2(1.1)	7(3.8)	1(0.5)	4(2.2)	0	
	대학원졸	1(5.6)	5(27.8)	2(11.1)	1(5.6)	2(11.1)	2(11.1)	1(5.6)	3(16.7)	1(5.6)	0	0	0	0	0	
근로 유형	자영업	12(21.8)	11(20.0)	11(20.0)	2(3.6)	2(3.6)	4(7.3)	3(5.5)	4(7.3)	0	2(3.6)	2(3.6)	0	2(3.6)	0	81.786 (.032)
	프리랜서	0	4(14.8)	13(48.1)	3(11.1)	0	0	3(11.1)	1(3.7)	0	0	3(11.1)	0	0	0	
	상용근로자(정규직)	27(12.9)	27(12.9)	60(28.7)	35(16.7)	21(10.0)	13(6.2)	5(2.4)	8(3.8)	4(1.9)	2(1.0)	3(1.4)	1(0.5)	3(1.4)	0	
	상용근로자(계약직)	11(15.9)	6(8.7)	21(30.4)	10(14.5)	5(7.2)	6(8.7)	2(2.9)	7(10.1)	1(1.4)	0	0	0	0	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4(11.4)	6(17.1)	16(45.7)	1(2.9)	1(2.9)	5(14.3)	1(2.9)	0	0	1(2.9)	0	0	0	0	
무직	1(16.7)	1(16.7)	4(66.7)	0	0	0	0	0	0	0	0	0	0	0		
소득	100만원 이하	1(11.1)	3(33.3)	5(55.6)	0	0	0	0	0	0	0	0	0	0	0	47.649 (.487)
	100만원~200만원	5(25.0)	3(15.0)	8(40.0)	1(5.0)	0	2(10.0)	0	1(5.0)	0	0	0	0	0	0	
	200만원~300만원	20(17.4)	17(14.8)	38(33.0)	10(8.7)	8(7.0)	10(8.7)	3(2.6)	4(3.5)	1(0.9)	1(0.9)	3(2.6)	0	0	0	
	300만원~400만원	26(11.4)	31(13.6)	66(28.9)	36(15.8)	18(7.9)	14(6.1)	7(3.1)	14(6.1)	4(1.8)	3(1.3)	5(2.2)	1(0.4)	3(1.3)	0	
	400만원 이상	3(10.3)	1(3.4)	8(27.6)	4(13.8)	3(10.3)	2(6.9)	4(13.8)	1(3.4)	0	1(3.4)	0	0	2(6.9)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항목별 질문은 아래와 같음

1. 주택안정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2. 가사활동 지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3. 건강증진 (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등)
4. 주거환경 개선 (수리, 낙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 등)
5. 안전한 환경조성 (귀갓길 안전, 강력범죄 예방 등)
6. 경제·일자리 지원 (구인구직정보, 능력 개발 등)
7. 인식개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8. 사회적 관계망 형성 (다양한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동 지원)
9. 정서적 안정 지원 (전문 상담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10. 1인 가구 전담 조직 또는 기관 설립
11. 여가·문화활동 지원 (취미,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12. 커뮤니티 공간 제공 (공유 주방, 스터디룸, 창작 공간 등)
13. 사회적 공동체 지원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체 조성)
14. 장애지원 (유서 및 위임장 작성, 삼조지원 등)

(10)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3순위)

-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세 번째 필요로 하는 지원은 ⑥경제·일자리 지원(구인구직정보, 능력 개발 등)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①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이 10.2%, ⑧사회적 관계망 형성(다양한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동 지원)이 9.7% 순으로 나타났음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없음

[표 2-49]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 순위별 요약

(단위: 명, %)

	①	②	③
1순위	주택안정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152, 37.9)	건강증진 (영양 및 신체적, 정신적 질병예방 등) (66, 16.5)	가사활동 지원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66, 16.5)
2순위	건강증진 (영양 및 신체적, 정신적 질병예방 등) (125, 31.2)	주택안정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55, 13.7)	가사활동 지원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55, 13.7)
3순위	경제·일자리 지원 (구인구직정보, 능력개발 등) (70, 17.5)	주택안정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41, 10.2)	사회적 관계망 형성 (다양한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동 지원) (39, 9.7)

- 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하면 대전지역의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필요한 지원으로 주택안정과 건강증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일자리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0]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 (3순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카이제곱
연령대	만 40~49세	21(10.4)	12(6.0)	11(5.5)	16(8.0)	15(7.5)	34(16.9)	22(10.9)	21(10.4)	15(7.5)	4(2.0)	11(5.5)	1(0.5)	15(7.5)	3(1.5)	11.401 (.577)
	만 50~59세	20(10.0)	12(6.0)	18(9.0)	22(11.0)	11(5.5)	36(18.0)	16(8.0)	18(9.0)	11(5.5)	8(4.0)	11(5.5)	4(2.0)	13(6.5)	0	
자치구	동 구	9(11.1)	5(6.2)	3(3.7)	6(7.4)	5(6.2)	13(16.0)	5(6.2)	14(17.3)	6(7.4)	1(1.2)	8(9.9)	1(1.2)	5(6.2)	0	58.647 (.245)
	중 구	6(7.5)	2(2.5)	4(5.0)	7(8.8)	6(7.5)	19(23.8)	11(13.8)	8(10.0)	4(5.0)	3(3.8)	6(7.5)	1(1.3)	2(2.5)	1(1.3)	
	서 구	7(8.8)	3(3.8)	11(13.8)	9(11.3)	6(7.5)	15(18.8)	9(11.3)	4(5.0)	4(5.0)	2(2.5)	2(2.5)	2(2.5)	6(7.5)	0	
	유성구	8(10.0)	6(7.5)	5(6.3)	5(6.3)	8(10.0)	13(16.3)	6(7.5)	7(8.8)	3(3.8)	3(3.8)	4(5.0)	1(1.3)	9(11.3)	2(2.5)	
	대덕구	11(13.8)	8(10.0)	6(7.5)	11(13.8)	1(1.3)	10(12.5)	7(8.8)	6(7.5)	9(11.3)	3(3.8)	2(2.5)	0	6(7.5)	0	
학력	중졸 이하	1(16.7)	0	1(16.7)	1(16.7)	0	2(33.3)	1(16.7)	0	0	0	0	0	0	0	51.888 (.081)
	고졸	21(10.8)	15(7.7)	18(9.2)	20(10.3)	16(8.2)	41(21.0)	17(8.7)	13(6.7)	9(4.6)	7(3.6)	4(2.1)	4(2.1)	8(4.1)	2(1.0)	
	대졸	18(9.9)	8(4.4)	9(4.9)	16(8.8)	10(5.5)	24(13.2)	17(9.3)	24(13.2)	16(8.8)	5(2.7)	17(19.3)	0	18(9.9)	0	
	대학원졸	1(5.6)	1(5.6)	1(5.6)	1(5.6)	0	3(16.7)	3(16.7)	2(11.1)	1(5.6)	0	1(5.6)	1(5.6)	2(11.1)	1(5.6)	
근로 유형	자영업	8(14.5)	3(5.5)	7(12.7)	2(3.6)	4(7.3)	9(16.4)	5(9.1)	5(9.1)	1(1.8)	1(1.8)	4(7.3)	1(1.8)	4(7.3)	1(1.8)	67.235 (.400)
	프리랜서	2(7.4)	2(7.4)	1(3.7)	1(3.7)	1(3.7)	3(11.1)	3(11.1)	4(14.8)	4(14.8)	2(7.4)	2(7.4)	0	2(7.4)	0	
	상용근로자(정규직)	20(9.6)	11(5.3)	11(5.3)	26(12.4)	19(9.1)	32(15.3)	19(9.1)	21(10.0)	14(6.7)	5(2.4)	8(3.8)	4(1.9)	17(8.1)	2(1.0)	
	상용근로자(계약직)	11(15.9)	7(10.1)	5(7.2)	7(10.1)	2(2.9)	9(13.0)	7(10.1)	6(8.7)	5(7.2)	2(2.9)	5(7.2)	0	3(4.3)	0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0	1(2.9)	4(11.4)	1(2.9)	0	15(42.9)	4(11.4)	3(8.6)	1(2.9)	2(5.7)	2(5.7)	0	2(5.7)	0	
무직	0	0	1(16.7)	1(16.7)	0	2(33.3)	0	0	1(16.7)	0	1(16.7)	0	0	0		
소득	100만원 이하	0	0	2(22.2)	1(11.1)	0	3(33.3)	0	0	1(11.1)	0	1(11.1)	0	1(11.1)	0	53.816 (.405)
	100만원~200만원	2(10.0)	0	1(5.0)	3(15.0)	0	10(50.0)	3(15.0)	0	0	0	0	0	1(5.0)	0	
	200만원~300만원	13(11.3)	10(8.7)	10(8.7)	8(7.0)	6(5.2)	22(19.1)	12(10.4)	9(7.8)	8(7.0)	1(0.9)	6(5.2)	0	9(7.8)	1(0.9)	
	300만원~400만원	24(10.5)	13(5.7)	15(6.6)	25(11.0)	18(7.9)	31(13.6)	19(8.3)	26(11.4)	14(6.1)	11(4.8)	12(5.3)	4(1.8)	14(6.1)	2(0.9)	
	400만원 이상	2(6.9)	1(3.4)	1(3.4)	1(3.4)	2(6.9)	4(13.8)	4(13.8)	4(13.8)	3(10.3)	0	3(10.3)	1(3.4)	3(10.3)	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항목별 질문은 아래와 같음

1. 주택안정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2. 가사활동 지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3. 건강증진 (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등)
4. 주거환경 개선 (수리, 낙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 등)
5. 안전한 환경조성 (귀갓길 안전, 강력범죄 예방 등)
6. 경제·일자리 지원 (구인구직정보, 능력 개발 등)
7. 인식개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8. 사회적 관계망 형성 (다양한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동 지원)
9. 정서적 안정 지원 (전문 상담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10. 1인 가구 전담 조직 또는 기관 설립
11. 여가·문화활동 지원 (취미,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12. 커뮤니티 공간 제공 (공유 주방, 스타디움, 창작 공간 등)
13. 사회적 공동체 지원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체 조성)
14. 장애지원 (유서 및 위임장 작성, 삼조지원 등)

3. 분석 요약

1)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망을 묻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특성은 '소득수준', '근로유형', '자치구'였음
- 특히 '소득수준'은 사회적 관계망 관련 모든 질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이었음
- 따라서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을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정리해보면,
- 소득이 적을수록 고민 상담할 대상이 적고,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제한적이었음²⁾. 또한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상도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들은 직장동료, 친구 순서로 나타난 것에 반해 200만원 이하 집단은 친구와 부모 순서로 나타나 사회적 교류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판단됨
- 간접 연락하는 대상 항목에서는 단계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친구와의 연락이 많이 나왔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와 같은 가족과 많이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00만원 이하 집단이 3.17점으로 100만원~200만원 집단보다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다른 세 집단이 평균 3.50점 이상으로 나타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2) 100만원 이하 집단은 선후배만,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부모, 배우자, 친구/이웃, 직장 동료, 선후배 집단만 고민상담 대상으로 응답해 다른 집단에 비해 고민상담 대상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분석됨

-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음. 특히 200만원 이하의 두 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평균점수 차이가 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사회적 교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소득수준'별 경향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보내는 장소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소득이 높을수록 직장과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공원/거리, 유흥시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관계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가활동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대전시의 중장년 남성들은 여가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여가활동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체 응답자 중 61.1%만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운동/등산, 문화(독서, 영화, 음악 등)이었음

2) 경제적 환경

- 대전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 경제적 환경과 교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환경을 묻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특성은 '근로유형', '소득수준', '학력'이었음
- '근로유형'과 '소득수준'은 경제적 환경 관련 모든 질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이었음. 다만 '근로유형'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안정 수준을 상용근로자(정규직), 자영업, 프리랜서, 상용근로자(계약직),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무직의 순서로 설정하였음
- 먼저 주요 소득 방법은 '근로유형'이 불안정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국가지원금과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무직 집단의 33.3%는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음

- 현재의 소득 수준 만족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근로유형’별로는 안정적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나 무직 집단(2.50점)보다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집단의 평균이 2.23점으로 나타나 현재의 소득 수준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집단으로 조사되었음.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00만원 이하 집단보다 100만원~200만원 집단이 평균 2.10점으로 가장 낮게 응답되어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집단의 ‘소득수준’과 교차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정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주로 주거비와 자녀교육비가 많았는데, 대출, 자영업,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집단은 자녀교육비가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 다른 집단은 주거비를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생각하고 있었음
- 앞으로의 소득 수준에 대한 예상은 무직, 100만원 이하의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100만원~200만원의 집단이 가장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았으나 ‘자치구’ 특성의 응답비율도 잠시 살펴보면 동구와 중구의 집단이 서구, 유성구, 대덕구 집단보다는 앞으로의 소득 수준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마음건강

- 사회적 관계망과 경제적 환경이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함
- 마음건강을 묻는 항목에서는 문항별 차이는 있지만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그 중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많았고, '근로유형', '학력', '연령대', '자치구' 순이었음
- 마음건강 항목에서도 '소득수준'은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50대보다는 40대가, 안정적인 직업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마음건강을 양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직 집단(2.17점)과 100만원 이하(2.00점) 집단의 마음건강 상태 평균 점수는 가장 높은 평균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특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석됨
- 평소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유형'은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프리랜서 집단이 가장 우울감을 덜 느끼고 무직집단은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외로움(34.5%), 미래의 불안감(27.6%) 순이었고, 200만원~300만원 집단과 300만원~400만원 집단은 사회·직장생활의 어려움(각각 29.6%, 25.9%), 외로움(각각 18.3%, 22.4%) 순이었음. 100만원~200만원 집단은 경제적 어려움(50.0%), 외로움(25.0%) 순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이하 집단은 건강

문제(44.4%), 경제적 어려움(33.3%) 순이었음

- ‘소득수준’ 특성의 대부분 집단에서 외로움을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에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질문에 비해 다양한 선택지에 분산되는 경향이 보이는 점 또한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임
-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소득수준’ 하위권 집단은 음주를 통해 해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위권 이상 집단은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방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 결과는 앞서 사회적 관계망에서 살펴본 내용과도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는 떨어지며 이로 인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음
-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마음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1순위 지원은 마음건강 관련 자가검진으로 전체 응답자의 34.7%가 원하고 있는 지원으로 나타났음. 2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항목은 오프라인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15.7%)이었으며 3순위에서는 체계적인 돌봄 관리서비스 제공(13.7%)였음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에서 주목할 수 있는 특성은 ‘자치구’와 ‘학력’ 임. 2순위 응답에서 동구 집단은 온라인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구 집단은 오프라인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 집단은 마음건강관련 자가검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3순위 응답은 ‘학력’에 따라 매우 다른 선호도를 보였는데, 중졸 이하 집단은 오프라인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제공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을 선호하였고, 고졸 집단은 온라인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 대졸 집단은 체계적인 돌봄관리서비스 제공, 대학원졸 집단은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나타나 집단별 차이가 매우 다름을 나타내고 있음

- 정리하면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스스로의 마음건강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치구’와 ‘학력’에 따라 선호하는 지원 정책이 부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가검진을 통해 또는 온라인으로 마음건강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중장년 남성들이 외부에 마음건강 상태를 보이지 않으려는 성향과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4) 1인 가구의 삶

-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중장년 남성들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이 없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의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혼자 생활한 기간이 매우 다양했지만 4년 이하 기간이 전체의 39.4%를 차지하고 있었음. 응답자의 전체 평균은 약 7.45년임
-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직장과의 거리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이혼,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혼자 살게 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혼자 사는 현재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아지고 ‘근로유형’이 안정적일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400만원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혼자 사는 현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근로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즉 학력이 높지만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세 가지 특성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혼자 생활하며 가장 힘든 점을 1,2순위 종합하여 보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가 전체 응답자의 33.4%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외로움(31.2%), 식사(24.9%) 순이었음
- 1순위 응답을 보면 ‘소득수준’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00만원 이하, 100만원~200만원, 400만원 이상의 집단은 외로움이 혼자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200만원~300만원, 300만원~400만원 집단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를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음
- 2순위 응답도 1순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프거나 위급할 때, 외로움, 식사의 순서로 나타났음. 다만 2순위 응답에서는 특성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집단이 불안한 노후 계획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과, 100만원~200만원 집단이 식사를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두드러졌음
- 대전시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향후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 대해 평균 2.94점으로 부정적인 전망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력’, ‘근로유형’, ‘소득수준’ 이었으며 종합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계약직),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자영업 직군과 100만원~300만원 사이의 소득,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집단이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전체 응답자의 37.9%가 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으로 응답하였고, 건강증진(18.2%), 가사활동 지원(16.5%) 순서로 나타났음
- 1순위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학력’이었는데 대학원졸

집단만이 건강증진을 1순위 지원으로 선택하여 차이가 있었음

- 2순위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었으나 대학원졸 집단에서 가사활동 지원(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집단은 주택안정(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이 가장 많았음
- 3순위 응답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경제·일자리 지원(구직구직정보, 능력 개발 등)이었고, 주택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순이었음



3 장

제언

1. 중장년 남성 1인가구 관심 제고
2. 경제적 자립 여건 마련
3. 더 집중적이고 강화된 안내와 홍보
4. 1인가구 삶의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5. 기초조사의 한계



3장 제언

1. 중장년 남성 1인가구 관심 제고

- 최근의 인구통계 및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청년층의 인구는 줄고 중장년층 이상의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임
-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흐름 속에서 한번 더 깊게 파고들면 중장년층의 1인가구의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고 그중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이는 앞으로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청년 및 노인 계층 지원 중심적이었던 복지정책의 기초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미임
-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이 50.1세로(금재호, 2011) 재취업이 어렵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아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강소랑 외, 2019), 만성질환자 비율 및 우울증 의심비율과 자살생각, 자살계획 등이 타 연령층의 1인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선희 외, 2020)
- 이러한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되는 1인가구와 그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0~50대 남성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의 각 유형별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적 자립 여건 마련

-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시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특성은 주로 '소득수준'이었음
-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과 마음건강, 1인가구 삶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월 임금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중장년 남성들의 경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현재 대전시는 중장년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복지행정체제로 저소득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끌어들이고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더 집중적이고 강화된 안내와 홍보

-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대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넓어 사회적 관계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에 비해 취약함 (한경혜 외, 2003)
- 설문조사에서도 대전시의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두텁지 못하고 좁은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줬음
- 이는 가뜩이나 여성이나 청년 계층에 비해 스스로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한데, 이웃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매우 적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따라서 중장년 남성 1인가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체 등의 정보를 대전시는 빠르게 취합, 집중관리를 통해 방송, 문자, SNS와 같은 비대면 홍보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 안내문 부착 및 배포와 같은 홍보활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마음건강 관련한 내용은 홍보의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 중장년 남성 1인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마음건강 지원방법이 자가검진이었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중장년 남성의 대다수는 마음건강의 중요함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인식했다라도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자기 구속적 경향은 차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4. 1인가구 삶의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 대전시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삶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주거 안정과 건강증진 활동이었음
- 주거 안정은 결국 경제적 자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한 영역임. 그리고 건강 증진 활동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가 및 단체의 지원도 필수적임. 특히 마음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영역이므로 외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함
- 1인가구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세우고 계층별, 집단별 수요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을 수립,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멀지 않은 미래에 납부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험은 현재를 살고 있는 1인가구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임

5. 기초조사의 한계

- 본 조사의 대상을 40~50대 중장년, 남성, 1인가구로 특정하여 진행하였기에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대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여건에는 일견 부적합해 보일 수 있음.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1인가구의 영역에서 앞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 남성의 복지정책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복지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설문 대상인원을 자치구별 인구비례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분배하여, 지역별 차이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음. 특히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소득수준' 특성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해 저소득 집단의 응답자 수가 현저히 적다는 한계가 있음
- 설문 문항의 설계시 대상자들의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고 싶은 욕심이 커 구체적인 인과관계나 정책적 제안을 위한 수요파악을 할 수 있는 정밀한 구성을 하지 못하였음

부록. 설문지

(설문지 일련번호)

대전광역시 40~50대 남성 1인가구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는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 남성을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 생활환경과 마음건강 인식을 파악하고자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33조와 34조에 의거하여 익명이 보장되며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질문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응답 내용은 관련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 (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 9월



- 연구책임 : 류유선 책임연구위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042-530-3533)
- 문 의 : 김성곤 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042-530-3548)

※ 본 설문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 1인가구 남성**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1964년~1983년 사이에 태어난 1인가구 남성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Part 1. 사회적 관계망

1. 귀하는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1-1로 이동) ② 아니오 (2로 이동)
- 1-1.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누구와 주로 이야기하십니까?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배우자 ④ 자녀 ⑤ 친구 및 이웃 ⑥ 직장동료 ⑦ 선후배
⑧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⑨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등) ⑩ 기타 ()
2. 귀하께서 **직접 만나는 빈도**가 높은 대상을 순서대로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형제자매 ⑤ 직장동료 ⑥ 친구 ⑦ 없음
3. 귀하께서 **간접적(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대상을 순서대로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형제자매 ⑤ 직장동료 ⑥ 친구 ⑦ 없음
4. 귀하는 **가족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가족 없음
5. 귀하는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친분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이웃, 친구 없음
6. 귀하께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서대로 3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집 ② 직장 ③ 공원이나 거리 ④ 도서관 ⑤ 문화공간 ⑥ 평생교육기관
⑦ 행정복지센터 ⑧ 편의점 ⑨ 유흥시설 (술집, 노래방, 당구장 등) ⑩ 기타 ()
7. 귀하는 여가나 취미와 관련된 주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 모두 체크)
① 없음(7-1로 이동) ② 운동, 등산 ③ 문화(독서, 영화, 음악 등) ④ 자원봉사 ⑤ 낚시
⑥ 수집 ⑦ 예술 ⑧ 게임 ⑨ 반려동물 ⑩ 종교활동 ⑪ 기타 ()
- 7-1.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②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③ 사람과의 만남이 힘들어서
④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⑤ 귀찮아서 ⑥ 기타 ()

Part 2. 경제적 환경

8. 귀하의 현재 소득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① 월 근로소득 ② 부모의 지원 ③ 자녀의 지원 ④ (전)배우자의 지원 ⑤ 아르바이트
⑥ 금융 및 부동산 ⑦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지원금 ⑧ 개인연금 ⑨ 기타 ()
9. 귀하는 현재의 소득 수준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0. 귀하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주거비(월세,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② 식비 ③ 의료비 ④ 자기개발비 ⑤ 경조사비
⑥ 유흥비 ⑦ 부모 부양비 ⑧ 자녀 교육비 ⑨ 취미활동비 ⑩ 기타 ()

11. 귀하의 소득 수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조금 나빠질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조금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Part 3. 마음건강

12. 귀하가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 건강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① 매우 건강함 ② 대체로 건강함 ③ 보통 ④ 별로 건강하지 못함 ⑤ 전혀 건강하지 않음
13. 귀하는 평소에 우울감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4. 귀하가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건강 문제 ③ 외로움 ④ 사회, 직장 생활의 어려움 ⑤ 성(性)적 욕구
 ⑥ 가족 또는 타인과의 갈등 ⑦ 미래에 대한 불안감 ⑧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⑨ 기타 ()
15. 귀하가 우울감을 느낄 때 주로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과 대화 ② 지인과 대화 ③ 전문가와 상담 ④ 참는다
 ⑤ 잔다(수면) ⑥ 취미활동 ⑦ 음주 ⑧ 기타 ()
16. 1인 가구 중장년 남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마음건강(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관련 자가검진
 ②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③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④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의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⑥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
 ⑦ 1인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홍보 지원
 ⑧ 1인가구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⑨ 체계적인 돌봄 관리서비스 제공
 ⑩ 전문의(민간기관) 상담 비용 지원

Part 4. 1인 가구의 삶

17. 귀하는 현재 혼자 살고 있지만,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 귀하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19. 귀하가 혼자 생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본인 직장과의 거리 ② 배우자와의 이혼 ③ 배우자와의 별거 ④ 배우자와의 사별
 ⑤ 부모 또는 형제지매의 사망 ⑥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분리 (기리기, 자녀독립 등)
 ⑦ 가족과의 불화 ⑧ 학교, 교육훈련기관과의 거리 ⑨ 기타 ()

20.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21. 귀하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식사 ② 외로움 ③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④ 주변의 시선
 ⑤ 성(性)적인 문제 ⑥ 불안한 노후계획 ⑦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⑧ 기타 ()
22. 귀하는 향후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현재에 비해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조금 나빠질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조금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3. 귀하는 1인 가구 중장년 남성의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주택안정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② 가사활동 지원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③ 건강증진 (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등)
 ④ 주거환경 개선 (수리, 낙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 등)
 ⑤ 안전한 환경조성 (귀갓길 안전, 강력범죄 예방 등)
 ⑥ 경제·일자리 지원 (구인구직정보, 능력 개발 등)
 ⑦ 인식개선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⑧ 사회적 관계망 형성 (다양한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동 지원)
 ⑨ 정서적 안정 지원 (전문 상담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⑩ 1인가구 전담 조직 또는 기관 설립
 ⑪ 여가·문화활동 지원 (취미,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⑫ 커뮤니티 공간 제공 (공유 주방, 스타디움, 창작 공간 등)
 ⑬ 사회적 공동체 지원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체 조성)
 ⑭ 정례 지원 (유서 및 위임장 작성, 상조 지원 등)

※ 응답자의 기본 정보

24. 귀하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만 세 (년생) (1964년~1983년 사이 출생자)
25.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구는 어디입니까?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26.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27. 귀하의 현재 근로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 ② 프리랜서 ③ 상용근로자(정규직) ④ 상용근로자(계약직)
 ⑤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⑥ 무직 ⑦ 기타 ()
28. 귀하의 월 평균 소득액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200만원 ③ 200만원~300만원 ④ 300만원~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참고문헌

- 강소랑·조규형·이서연·김민주·강시온(2019),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직업
이력 및 경제활동>,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금재호(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11), 61-75.
- 류유선·김성곤·오윤희(2022), <대전광역시 20대 여성 마음건강 기초조사>, 대전세종연구원.
- 박 건·김연재(2016),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 4050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 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단.
- 박노동·이정립·박해남·방정희(2018), <대전광역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세대별 차이분석>, 대전세종연구원.
- 박미선·조윤지(2020),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
른 정책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749호.
- 박선희·최영화(2020), 중장년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
68호, 45-78.
- 박준범·권병구·김민기·박홍민·오경석(2019),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배옥현(2022), <경북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송인주(2016), <서울특별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연구>, 서울시복지
재단.
- 이진숙, 이윤석. (2014). 비혼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한국인구학, 37(4),
1-24.
- 장진희·김영정·김혜영·장명선·이인휘(2017), <서울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경혜·김주현·김경민(2003), 중장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회 23(2), 15-170.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통계청. MDIS 마이크로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

2023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기초연구

대전광역시 40~50대 남성 1인 가구 현황 및 지원방안 기초조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